

예술인들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첫걸음

—
의정부예술 창간호
발간사



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장

최 명섭

의정부 예술을 피우고 문화를 드리우며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위해 창립된 한국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가 올해로 어느덧 26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의정부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의정부 예총 임직원분들과 각 협회 지부장님 및 회원 여러분들의 올 한해 창의성과 열정 있는 예술활동으로 단합된 모습을 담은 창간호 “의정부 예술”을 발간하게 됨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담은 문화예술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더욱 발전하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문화창조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급변하는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성을 넘어 저마다의 실생활에 스미는 생활예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의정부 문화예술 융성의 첨병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외부적인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 반드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의정부 예총은 이번 예술지 발간을 계기로 회원 간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감과 동시에 민관 협력 관계를 공생과 공영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정부 예총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의정부 예술”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의 자취로서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면서 발간을 위해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관계 인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로 빛날 의정부시의 다가올 100년의 봄

—
의정부예술 창간호
축사



의정부시장 안병용

안녕하십니까!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의정부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회가 한해를 마무리하며 『2019 의정부예술』을 발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예술지 발간은 의정부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부예총 및 9개 지부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로 2019년 주요행사 실적과 현황, 2020년 추진할 주요 행사계획, 각 지부별 칼럼 및 대표작품 소개 등을 야심차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의 향토문화재, 미술도서관, 문화축제 등을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의정부 문화예술의 발전 상을 알리는데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예술지 발간 뿐만 아니라 더욱 왕성한 예술 활동으로 의정부시의 다가올 100년의 봄을 문화 예술로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술지의 성공적인 발간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해주신 의정부예총 최명섭 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지는 예술적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소중한 가치

—
의정부예술 창간호
축사



의정부시의회 의장 안지찬

우리 예술의 진수를 전하고 문화의 꽃을 피어내는 의정부예총의 『2019 의정부예술』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45만 의정부시민과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예술지 발간을 위해 애쓰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최명섭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술지는 예술적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소중한 가치로 의정부시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또한 작가들에게 작품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예술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예술 발전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예술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시민 여러분께서 예술인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9 의정부예술』 발간을 축하하며, 이번 예술지가 의정부시 예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예술계의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고귀한 정신을 보여준다

—
의정부예술 창간호
축사



국회의장 문희상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2019 의정부예술』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간을 위해 애쓰신 (사)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최명섭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술계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고귀한 정신을 보여준다.” 는 말처럼 예술은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에서 나아가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돌아보게하고 정화시키며 보다 성숙된 자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 의정부예술』 또한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다채로운 작품들을 통해 의정부 시민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나아가 『2019 의정부예술』이 의정부 시민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의정부를 대표 하는 예술지로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2019 의정부예술』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에 유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술활동에 한 획을 긋는 소중한 기록물

—
의정부예술 창간호
축사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국회의원 홍문종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국회의원 홍문종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은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송년의 아쉬움을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의정부 지역예술 발전을 위해 한국예총 의정부지회가 창립의 첫걸음을 뗀 지 어느덧
26년의 성상이 흘렀습니다. 문화예술 불모지 의정부가 경기도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성장한 그 26년의 시간을 지켜본 저로서는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벅차오
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한해를 보내야 하는 이때, 의정부 예총 최명섭 지회장님과
9개 협회 지부장님, 그리고 예총 회원 여러분들의 1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기약하는 『2019 의정부예술』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함
께 창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한류에 열광하고,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문화 수출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 모든 한류 콘텐츠의 힘의 원천은 우리 예술문화의 튼튼한
내적 역량과 문화예술인들의 소통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가 예술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향의 모습을 갖춘 것은 의정부 예총 9개 협회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문화예술도시 의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19 의정부예술』은 의정부 예총의 예술활동에 한 획을 긋는 소중한 기록물이
자, 의정부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소통매개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려운 여
건 가운데서도, 각자의 예술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예술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문
화예술인 여러분들의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
민의 예술적 감성과 문화적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지역예술문화 저변을 확산하
는데도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9년 금년 한해,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정부예술 창간호
축사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식

먼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의정부 예총 임·직원분들과 각 협회 지부장님 및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금번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의정부지회 26주년에 즈음하여 “의정부예술지”를 창간하신다고 하니 지역의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동반자이자 한 시민으로서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의정부 예총은 1993년 7월 한국예총으로부터 인준을 받아 의정부1동 사무소 옆 가건물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2003년 의정부시 야외상설무대를 수탁받아 사무실을 이전 개소한 후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실은 문화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의정부 지역에서 지역문화 예술계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적 운영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하신 임·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의정부예총은 사진작가, 무용, 연극, 음악, 미술, 문인, 연예, 영화인, 국악 9개 단체 1200여명의 회원이 지역에서 활발히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예술지”창간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의 열정의 결정체로서 지역문화 창달과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예총이 의정부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 시키는데 협력하고 상생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재조명

—
의정부예총 창간호
축사



의정부문화위원장 윤성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송구영신의 달을 맞이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의정부예총과 각 지부의 예술가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소식을 가득 담은 『의정부 예술』을 편찬하시게 된 것을 의정부 문화가족 모두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의정부예총』은 의정부 예술인의 중심에서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해왔음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의정부 예술』은 그동안 의정부의 수많은 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음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지 못했던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예술지의 발간을 통해 그동안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나아가 지역 예술인들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답으로 문화와 예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여유롭게 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와 예술의 힘을 믿고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심에 있는 『의정부예총』에 우리는 많은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의정부 예술』의 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의정부예총의 최명섭 회장님과 지부장님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부의 모든 문화가족들의 마음을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다가올 경자년(庚子年)에도 의정부의 모든 예술인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UIJEONGBU YECHONG HISTORY

—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연혁

1993.07

한국예총 의정부지부 인준

사진작가, 무용, 연극, 음악, 미술, 문인, 음악, 국악 등
8개 협회 회원 단체가 구성되어
한국 예총으로부터 인준을 받아 활동 시작

1993 - 1996

초대
류후선 회장

2019.12

(현) 구성단체

사진작가, 무용, 연극, 음악, 미술,
문인, 연예, 영화인, 국악
9개 단체 구성 회원수: 1,120여명

2015 - 2020

7대 · 8대
최명섭 회장

2012 - 2014

6대
황석자 회장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설립목적

9개 회원협회(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부 문화예술의 창달과 교류 및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함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역대회장



초대 류후선 회장



2대 - 4대 이흥재 회장



5대 김용남 회장



6대 황석자 회장



7대, 8대 최명섭 회장

1995.06

이전 개소

1995년 6월10일
의정부1동 190번지 16호 이전개소
한국 예총으로부터 인준을 받아
활동 시작

1996-2008

2대 · 3대 · 4대
이흥재 회장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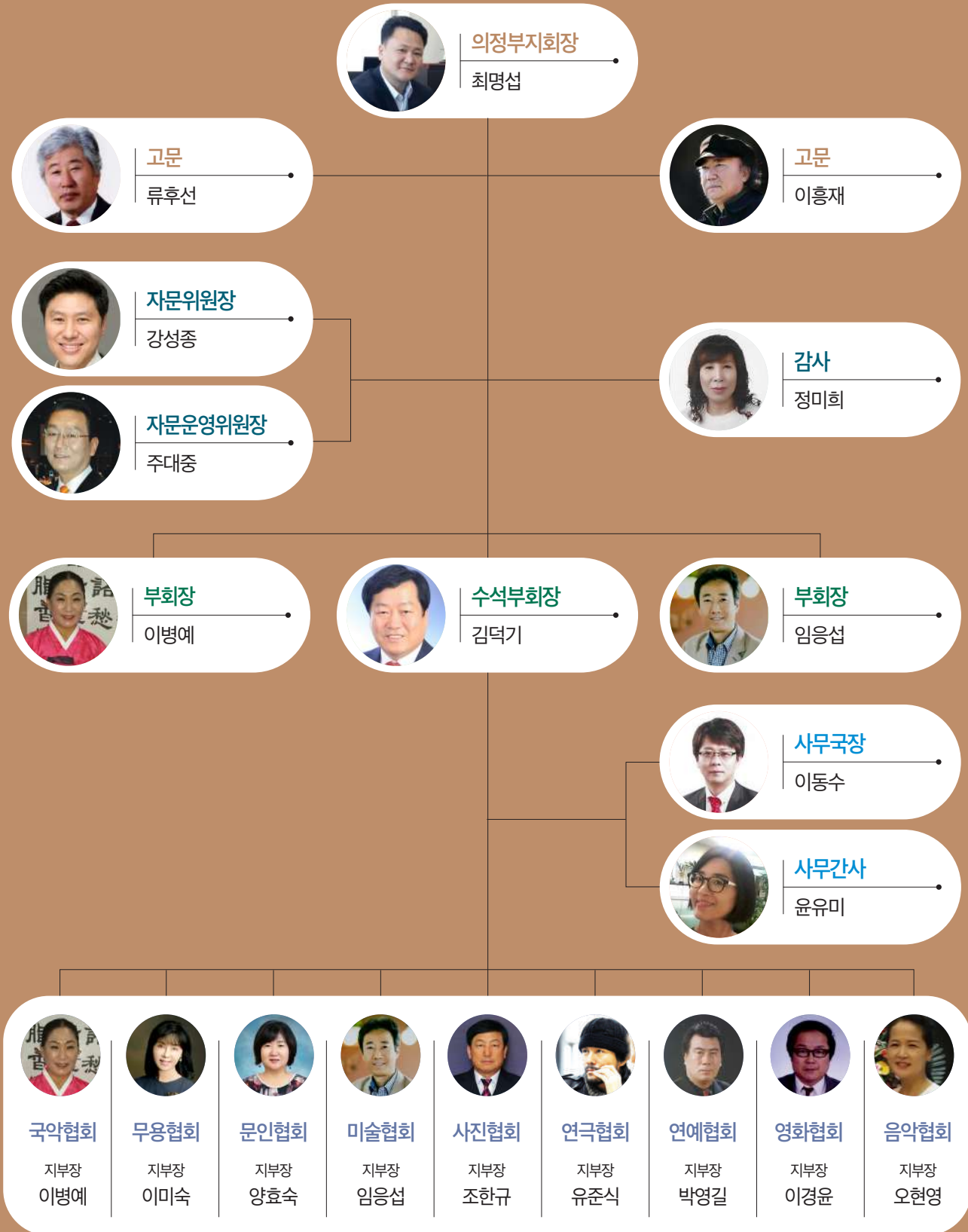
5대
김용남 회장

2003.05

이전 개소

2003년 5월 10일
의정부2동 477-1호 소재
의정부시아외상설무대 수탁받아
사무실을 이전 개소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조직도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의정부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 교류 장소로서의 역할과 의정부예총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과 문화예술단체로서의 비전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문화예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관내 전문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공간에서 문화 향유자인 동시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는 공간의 장을 마련
-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문화원등 타 문화예술기관과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야외무대의 특성을 살려 야외전시 및 체험, 열린 야외무대 공연을 추구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선
- 야외무대 일원을 행복 야외갤러리 공간으로 개방성 확대와, 낙후된 시설에 대한 증축과 리모델링, 신규 건립 등을 추진하여 행복 야외갤러리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추진으로 야외무대 일원을 문화예술 갤러리 공간으로 개선
- 9개 협회를 주축으로 문화예술인 인적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예술인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 공간으로 추진
- 열린 광장의 이미지로 개선 및 홍보하여 시민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도시재생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광장 추진
-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육성재단 등 관내 청년문화예술 육성, 관내 대학교와 대학생 문화예술 육성,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 문화예술 육성 등 각 기관과 협업을 통한 기획운영 사업 추진
-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문화예술발전 단체 결성으로 문화예술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워크샵과 예술지 발간 사업과 연계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문화예술행사

(2014~2019년)

제21회 2014 통일예술제

일 시 2014.09.26.(금) ~ 09.28(일)
 장 소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사업대상 의정부시민 및 인접지역 시민
 사업내용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306 2014 사랑나눔 음악회

일 시 2014. 04 ~10. (년6회 공연)
 장 소 306보충대 연병장(야외무대)
 사업대상 입영장정과 동반 가족
 사업내용 입영 부대 내에서 공연 및 이벤트를 통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장정들에게 가족·친구·연인과의 송별을 위로하고 입영 장정들의 사기 진작에 도모.

라운아트 2015 프리마켓

일 시 2015. 09. ~ 12.
 장 소 의정부역지하상가내 빈점포, 의정부역동부광장, 행복로 야외무대, 송양고등학교 운동장
 사업대상 의정부시민 및 인접지역 시민
 사업내용 · 다문화, 새터민, 외국인, 청년, 베이비부머세대, 어르신, 예술인들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티 협의체 구축.
 · 문화예술강좌를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융합.
 · 프리마켓을 통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융합.

2015 의정부예술제

일 시	2015.10.16.(금)~10.18(일)
장 소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사업대상	의정부시민
사업내용	의정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고 직접 참여하여 의정부지역의 관심과 애항심을 고취.

2016 심신일체 페스티벌

일 시	2016. 10. 21.(금)
장 소	의정부시 행복로 특설무대
사업대상	의정부시민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고 직접 참여하여 의정부지역의 관심과 애항심을 고취. · 예술과 의료를 통합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 지점 구축. · 문화예술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과 외국인 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통합 도모 및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2016 2016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

일 시	2016.01 ~ 1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우리가락얼쑤) 2016.10.22.(토) / 행복로 특설무대 전통국악과 창작국악의 저변확대. · 무용(제5회 가무악축제) 2016.12.12.(월)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들과 즐기며 문화예술 공유기회 마련. · 문인(제23회 의정부전국백일장 및 제25집 의정부문학 발간) 문화적 가치를 생각하게하고 지역사회 문학예술의 수준을 높임. · 미술(2016 의정부 현대미술 초대전) 12.02~12.09 / 경민현대미술관 경기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업작가와 미술협회 회원이 함께 전시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진(회원전)10.21~10.22 의정부지부회원들의 단합 및 지역 사진예술의 활성화. · 연극(원코리아페스티벌) 10.22 / 행복로 특설무대 의정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통일로의 소통. · 연예(철쭉가요제) 10.21 - 행복로 특설무대 전연령대가 참여하는 가요제로 축제의 장 마련.

- 영화(만추의밤 영화상영) 2016.10.08.(토) / 상설야외무대
 좋은 영화를 시민들에게 관람케 함으로 문화생활에 이바지.
- 음악(찾아가는음악회 및 회원음악회) 10.26~12.16
 협회 회원들이 의정부시민들을 위해 클래식 공연을 함께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주회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

2017 의정부 예술제

일 시	2017.6.17.(토)
장 소	송산 다리목 근린공원)
사업대상	의정부시민 및 인접지역 시민
사업내용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 및 전시 문화를 통해 문화 예술 중심 도시로서의 자긍심 고취.

제1회 2017 별빛여울축제

일 시	2017.10.27.(금) ~ 10.28.(토)
장 소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백석천일대
사업대상	의정부시민 및 인접지역 시민
사업내용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발전에 기여.

제2회 2018 별빛여울축제

일 시	2018.06.30.(토) ~ 07.01.(일)
장 소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사업대상	의정부시민 및 인접지역 시민
사업내용	수준 높은 공연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함께 즐기는 문화소통의 장 마련.

2018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

일 시	2018.01 ~ 12.
사업대상	의정부시민 및 인접지역 시민
사업내용	· 국악(풍류에취한가락) 2018.10.28.(일) / 의정부역동부광장 우리가락의 무한한 예술세계를 만남으로 정서적 안정에 기여.

- 무용(제6회 가무악축제) 2018.11.21.(수) / 신세계홀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들과 즐기며 문화예술 공유기회 마련.
- 문인(제27집 의정부문학 발간)
의정부시 거주 문인들의 공저 문예지 발간을 통해, 지역 사회 문학예술 분야의 위상을 드높임.
- 미술(2018 현대미술 초대전) 12.21~12.25 / 의정부 예술의전당
경기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업작가와 미술협회 회원이 함께 전시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진(회원전) 10.21~10.22 /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 시민에게 사진전시를 통하여 사진예술의 저변 확대.
- 연극(원코리아페스티벌 토론회) 11.17 / 의정부 예술의전당
분단 없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원래의 코리아, 하나의 코리아로 돌아가기 위하여 원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
- 연예(시민을위한 문화축제) 9.30 / 행복로 특설무대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예협회가수와 연주자들의 공연.
- 음악(행복배달 음악회) 10.1~12.10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직접 보여주고 들려줌.

제3회 2019 별빛여울축제

일 시	2019.5.31.(금) ~ 6월1일(토)
장 소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사업대상	의정부시민 및 인접지역 시민
사업내용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제1회 2019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일 시	2019.5.31.(금) ~ 6월1일(토)
장 소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사업대상	의정부시민 및 인접지역 시민
사업내용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활동 네트워크의 장 마련.

2019 자체역량강화 워크숍

일 시	2019.8.23.(금)
장 소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사업대상	의정부시청, 유관기관, 의정부예총 각지부 회원
사업내용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하여 예총 9개 지부 예술인들에게 조직·인력·예산계획·비전 전략체계 수립 방안 모색

2019 시군예술단체 지원 사업

일 시	2019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孝心) 2019.5.26.(일) 의정부행복로 미디어루프 우리가락의 무한한 예술세계를 만남으로 정서적 안정에 기여. · 무용(신명의어울림) 2019.5.1.(수) 신세계문화홀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들과 즐기며 문화예술 공유기회 마련. · 문인(제28집 의정부문학 발간) 전국 문학공모전 수상작, 회원작품을 게재한 문예지 발간을 통해 지역 사회 문학예술 분야의 위상을 드높임. · 미술(2019 현대미술 초대전) 11.22~11.26 - 의정부 예술의전당 경기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업작가와 미술협회 회원이 함께 전시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진(2019회원전) 11.11~11.15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사진협회 회원작품 전시를 통하여 사진예술의 저변 확대. · 연극(원코리아뮤지컬 콘서트) 5.3 - 의정부행복로 신한은행앞 특설무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뮤지컬 갈라쇼. · 연예(시민을위한 문화축제) 5.19 - 행복로 미디어루프 연예협회 산하 밴드 공연 및 초청가수 공연. · 음악(행복배달 음악회) 5월~12월 소외시설 방문을 통한 음악봉사.

2019 의정부예총 예술인의밤

일 시	2019.12.12.(목)
장 소	의정부시청 대강당
사업내용	의정부예총이 한해를 되돌아보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뜻깊은 화합과 친목의 장.

UIJEONGBU ART & CULTURE GALLERY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문화예술행사 갤러리



▲ 2014년도 『제21회 통일예술제』



▲ 2014년도 『306사랑나눔음악회』



▲ 2015년도 『의정부예술제』



▲ 2015년도 『라운아트프리마켓』



▲ 2016 심신일체페스티벌



▲ 2016 의정부음악협회 회원음악회



▲ 2017 의정부예술제



▲ 2017년도 『제1회 별빛여울축제』



▲ 2018년도 『제2회 별빛여울축제』



▲ 의정부문학 제27집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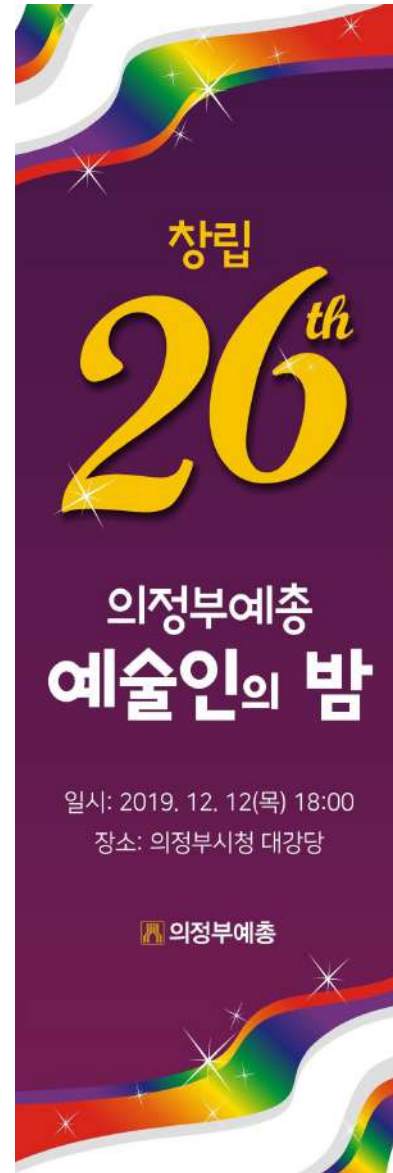
▲ 제1회 의정부 생활예술인경연대회



▲ 제3회 별빛여울축제



▲ 2019 의정부예총 워크숍



▲ 2019 의정부예총 예술인의밤





의정부 문화예술 축제 발전을 위하여

의정부예총 최명섭 회장



● 시민 감성의 축제! 생활예술을 즐기자

여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의 다양성이 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의 성공 및 국제화를 위해서는 독특하고 친밀한 축제 소재를 개발하여 콘텐츠를 활용하고 축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생활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상 속의 축제 유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 **킬러 콘텐츠속의
생활문화 축제**

이와 함께 킬러 페스티벌을 개발하여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관광과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은 어떨까?

지역축제는 특정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확보해 해당 지역의 경제, 문화, 역사 등 전체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므로 지역축제의 차별화와 브랜드화는 관광객 수요 창출과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의 주요 축제는 지역의 경제, 문화, 역사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표적인 요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신규 대표축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 **문화적 소외감에 따른
응원이 필요**

문화의 소외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정부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도시로 육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의정부를 도시의 특성과 기존의 탄탄한 문화예술 자산을 잘 활용하는 한편 반환되는 미국 캠프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전문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박물관 건립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의정부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BMF 페스티벌, 별빛여울축제, 회룡문화제 등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축제와 신생 축제를 적극 육성, 활용하여 브랜드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해 보인다.

● 새로운 예술정책 시대의 도래

먼저 시립오케스트라단을 설립해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I Sistema) 운동처럼 의정부시의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필두로 문화예술 박물관을 건립하고 미군 캠프 중의 하나를 문화예술 공원으로 조성해서 각종 문화예술 캠프,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페스티벌 등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와 함께 의정부 시내의 대형 사인 몰과 도로 표지판 등을 새로 창출될 문화예술 브랜드 상징물로 만들고 지역의 일부 지형물을 주제로 도시 전체가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를 나타내 줄 것이다.

● 자치분권에서 문화분권으로 길을 열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1년에 개최되는 축제, 페스티벌 수는 이미 천 개를 넘고 있다. 크고 작은 이벤트가 거의 매일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축제들이 여러 곳에서 개최된다고 생각하면 축제의 콘셉트와 기획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문화예술 분야는 쉽게 즐기기 어렵다는 선입관이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이를 역이용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내 곳곳에서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킬러 페스티벌로 연결한다면 의정부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과 정신건강

예술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오승준 병원장

새하늘병원 오승준 병원장

‘예술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술이라는 단어가 때론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예술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생활에 가까이 있음에도 예술이라는 단어를 멀리 느끼는 것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입니다. 예술은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이나 그 작품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을까? 이 옷에 맞는 립스틱의 색상은 무엇일까? 신발은?’ 매일 아침에 ‘나’라는 백지에 나를 표현 활동이라는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은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이 자극되고 순화되는 힘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고 감정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이 분출되기도 하고 순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전시회라는 이야기에 기대하고 공연을 보고 난 이후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상하게 찝찝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죠? 그 공연이 나의 감정 어딘가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주인공의 상황이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과거의 상처가 기억나 힘들기도 합니다. 혹은 저 주인공의 삶의 어려움을 동일시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감정이 자극되고 순화가 되는 순간들입니다.

둘째, 창조성의 활성화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그 아름다움을 창조, 표현하는 기능도 있고, 그 아름다움 자체를 즐기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 표현의 활동을 도구를 몸으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표현할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아름다움의 표현을 보고 즐기는 관람까지 활동을 이어갑니다.

셋째, 상징의 자극과 충동발산

예술은 무의식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충동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에 예술과 접목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이라는 안전한 세팅을 통해서 나의 무의식, 아동기적 환상 등을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리치료(미술, 음악, 무용 동작, 연극, 사이코드라마 등)에서 무의식을 자극해서 안정적으로 충동을 발산함으로써 나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예술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나의 정신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넷째,
몰입, 놀이의 기능

우리가 흥미로운 작업에 집중했을 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신세계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서 시간개념과 감각자극을 잊게 만드는 몰입 현상입니다. 몰입 현상은 주의의 모든 잡념, 방해물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술가가 집중하여 예술활동을 할 때, 작품을 집중해서 감상할 때, 즐거운 일을 할 때 몰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놀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생존과 관련한 활동을 제외하는 활동, 일과 대비되는 개념을 뜻합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몰입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나의 놀이의 방법입니다. 놀이는 자발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나의 정신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가 의식화하지 못한 것을 의식화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수 예술영역에서도 많은 활동이 필요하지만, 예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쉽게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가 발전한다면 예술이 조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신문 인용)



제3회 의정부 별빛여울축제 문화의 꽃, 예술의 꽃 의정부서 '활짝'

5월 31일 ~ 6월 1일 의정부시청 앞 상설야외무대에서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제3회 의정부 별빛여울축제' 개최





의정부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의정부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 회장 최명섭)는 시민들과 의정부 예술인들이 하나되어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고 문화 예술과 우리 삶이 결코 멀지 않음을 증명했다.

5월 31일 기념식과 함께 시작된 '제3회 의정부 별빛여울축제'는 가수 진성, 윤수현, 최시라, 향기, 구수경 등의 무대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먼저 제공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수많은 내빈들과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 모여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예총과 각 협회, 시민 간 긴밀한 호흡을 통해 의정부시 문화예술이 상생의 꽃을 피우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섭 의정부예총 회장은 "의정부예총과 각 협회의 협력을 통해 의정부시의 문화와 예술이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부예총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의정부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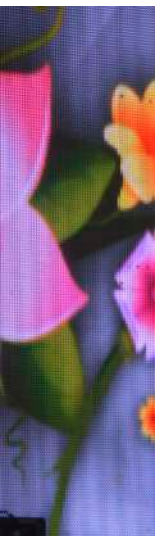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1일 이어진 무대공연에서는 9개 협회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들이 시민들의 흥을 한 층 더 끌어 올렸다. 함께 열린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은 휴일을 맞은 시민들에게 더없이 큰 추억을 선사했다.

국악협회의 '신명나는 우리가락'과 문인협회의 액자시화전, 무용협회의 공연 '여울빛 사랑'과 미술협회가 진행한 아트상품 판매 및 참여마당은 특히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부채와 티셔츠 등을 만들어보았으며, 미술협회가 주관하는 페이스페인팅을 칠한 채로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또한 사진협회의 사진작품 전시와 연예협회의 밴드공연·가수공연, 음악협회의 별빛여울 클래식콘서트 등은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Festival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문화예술

의정부예총 최명섭 회장은 “의정부시가 행복도시이자 문화예술의 장이 되어 가는데 근간이 되었던 의정부예총이 그간 이뤄왔던 업적을 토대로 많은 문화 예술인, 시민들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예술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전통에 뿌리를 둔 문화예술이 글로벌시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여정에 의정부예총이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들간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이번 ‘제3회 의정부 별빛여울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미소를 띠며 자리를 떠났다.

이번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시민 김씨(41, 호원동)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히고 “특히 가족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덕분에 온 가족이 오랫동안에 맞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의정부시를 비롯한 신한대학교, 경민대학교, 농협은행 의정부지부, 경기의료협력센터, 경기문화유산바로알기운동본부 등 의정부시를 사랑하는 각계각층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 동참해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출처 | 경인매일



Contest
기획특집

제1회 의정부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생활 속 예술을 열다!

의정부 생활예술인 경연대회가 생활 속 예술 세상을 열다
생활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의 에너지 바람이 분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예술

세계가 우리 것을 선호하고 배우려 하는 예술문화의 변화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더 높은 욕구를 요구한다.

전문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의정부예총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예술인 경연대회가 이제 한 차원 더 높게 예술을 일반화하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창의성과 개척 정신으로 전문 예술을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호흡으로 다가오며,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문화예술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모른다.

문화예술의 작품성은 “소통과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의 약점과 장점을 살려 완성도와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겸손의 징검다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아갈 의정부예총

이번 경연대회를 통하여 순위를 떠나 상호 존중과 이해, 다른 문화예술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해 갈 것이며, 의정부 시민의 생활문화예술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다.

첫 회로 시작한 경연대회 참가자는 약 260여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이를 통한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등 여러 구성원들의 발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며, 향후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기대가 크다.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의정부예총을 거점 공간을 시작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서 나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문화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출처 | 경인매일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을 위한 성과평가 대비 자체역량강화 워크숍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워크숍 열고
"의정부 예총의 정체성 확립"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는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워크숍을 열고 신규사업 및 주요 계획사업을 위한 성과평가를 대비한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와 (주)캐슬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이덕범)의 업무협약식이 먼저 진행됐다.

(주)캐슬호텔앤리조트와 한국예총 의정부지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갖고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양 기관 공동의 번영을 약속했다.

이어진 시간에서는 '철학(哲學)은 처락(處樂)이다'라는 주제로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의 강연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철학(哲學)은 처락(處樂)

이다'라는 강연을 통해 의정부예총의 발전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정부예술의전당 소홍삼 본부장의 '지역축제 활성화방안' △의정부 새하늘병원 오승준 원장의 '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의신교수의 '브랜드와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문화예술훈제로 펼쳐졌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한 회원은 "생동감 넘치는 여러 강연을 통해 의정부예총만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밝히고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워크숍 스케줄이었지만 적절한 시간분배와 흥미있는 강연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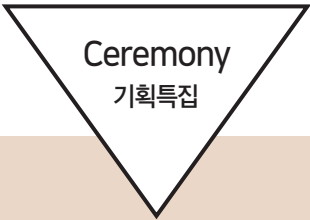
이날 워크숍은 특히 ▲비전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의정부예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전전략체계와 연계한 실행력을 제고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문화예술기관 간의 연계방안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사회 기간과 연계방법을 고민하는 등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의정부예총의 고민이 담긴 시간이라고 평가받았다.

한편 의정부예총은 의정부시를 행복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9개 지부가 중심이 돼 예술의 균형을 이루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의정부예총 최명섭 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예술이 승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글로벌 시대의 중심이 되는 의정부예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출처 | 경인매일





의정부예총 창립 26주년 예술인의 밤

“2020! 의정부시 예술도시 도약 원년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고 대중들이 지금과 같은 풍족한 일상을 영위하기도 전부터 예술인들은 사회의 뒤에서 묵묵히 밝고 찬란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희생과 노력, 봉사 정신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큰 가치가 되었고 그들이 만들어 간 문화적 가치는 발자취가 되어 국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특히 의정부예총은 의정부시를 행복 도시·문화예술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큰 근간이 되어왔다. 9개 협회

가 주축이 되어 예술발전의 균형을 도모한 의정부예총은 그간의 노력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부 시민들의 삶 가까이 예술을 마주하게 했다.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의정부예총이 이러한 공로와 정신을 치하하고, 올 한해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창작의 끈을 놓지 않은 의정부 예술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인 예술인의 밤을 개최했다.

12월 12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부예총 창립 26주년 예술인의 밤에는 의정부예총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우리 사회에 예술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증명했다.

의정부예총 최명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올 한해를 최고의 해로 보낼 수 있어 감사히 생각하고, 이 같은 마음을 새겨 다가오는 새해에도 화합 단결하여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처 | 경인매일

국악
협회

창간호 발간에 즈음하여!



국악협회지부장
이병예

1	2
	3

1. 국악협회 정기공연
2. 21C 요양원 봉사공연
3. 효도잔치 봉사공연

예술인의 숙원 사업이 이뤄질 때마다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그 기쁨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의정부 예총의 발자취가 한 권의 책으로 나오니 그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큼니다. 9개 지부 중 국악지부의 역사도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는 생각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예술의 의미와 함께 예술인의 역할과 책임도 더불어 느낍니다. 예술의 영역은 세상 모든 것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우주 영역까지 아우르는 광대함과 세밀함이 함께 하지요. 그 안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도록 합니다. 삼라만상과의 조화로우름과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면서요.



보고 느끼고 듣고 누군가와 가장 깊은 곳까지 닿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이 예술로 표현되고 오늘도 숨 쉽니다. 더불어 즐기고 행복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배가 시켜주는 우리 예술인들의 정체성을 이 순간 다시 한 번 떠올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소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소통 역시 정겹고 그 모든 것을 예술 형식으로 담아낼 때 보람 있습니다.

문학, 사진, 미술, 연극, 연예, 국악, 무용, 음악, 영화까지 의정부 예총엔 9개 지부가 있는데 장르 매체만 다를 뿐 예술로 하나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과 삶을 담아내고 나누며 품어주는 의미 있는 행보가 예총 안에서 이어지고 이뤄집니다.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예술적 가치로 승화시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서로 빛나지요. 전시 파트와 공연 파트로 때론 나뉘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하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 큰 힘과 역동이 일어나길 오늘도 기원하며 의정부 예술을 바라다 봅니다.



한국국악협회 의정부지부 주요연혁

- 1991 사)한국국악협회 의정부지부 창립
- 1993.03.15. 한국국악협회로부터 인준
- 1993~1998 국악민속공연
- 1994~2014 통일예술제 국악공연
- 1994.05.15. 경기도문화예술공연
- 1995~ 회룡문화제국악공연
- 1995~ 국악협회창립기념 공연
- 1999~ 국악협회 정기공연
- 2001.05.11. 의정부예술의전당개관기념 공연
- 2001.8.12-17. 한중음악교류 중국공연
- 2001.11.10. 세계민요축제 초청공연
- 2002.05.01. 제48회 경기도체전 국악공연
- 2002.12.20. 의정부교도소재소자위문공연
- 2003.05.21. 2005 국제음악극축제 국악공연
- 2006.09. 2007 사패문화제 국악공연
- 2009.02. 파주시 무형문화재 공연
- 2011.05.05. 가족문화축제 국악공연
- 2011.06.06. 동두천예술제 비나리 공연
- 2011.10.27. 의정부모던팝스 오케스트라 창단기념 국악 공연
- 2012.06.23. 의왕시단오축제국악공연
- 2012.11.04. 동오음악제 국악공연
- 2013.09.12. 투티팝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풍악
- 2013.10.05. 동두천국악협회 초청공연
- 2014.04.18. 국립국악원 예약당 국악공연
- 2014.08.15. 한여름밤의 축제 초청공연
- 2015.10.31. 라온아트프리마켓 국악공연
- 2016.08.27. 경기북부시민음악회 국악공연
- 2016.10. 추석맞이 재래시장 활성화 공연
- 2017 국악공연 동행(장애인복지관 등 6차례 방문 공연)
- 2017~ 의정부별빛여울축제 국악공연
- 2018.10.03. 전국국악제 축하공연
- 2019.05.25. 전통시장국악공연



1	2
	3
4	5
6	7

1. 락의 사계 - 포스터
2. 락의 사계 - 가야금 병창
3. 락의 사계 - 사물놀이
4. 락의 사계 - 무용
5. 락의 사계 - 꿈꾸는 아리랑
6. 락의 사계 - 경기민요
7. 락의 사계 - 잡가

8	9
10	
11	12

- 8. 효심 - 포스터
- 9. 효심 - 회심곡
- 10. 효심 - 사물놀이
- 11. 효심 - 취타대
- 12. 효심 - 가야금 병창



무용
 협회

무용협회
 이야기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1	2
	3

1. 제7회 의정부가무악축제
2. 2019세계김치축제
3. 제28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 '달빛에 물든 꽃잎'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는 한국무용 전공자들이 전통무용 공연 활동을 통해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전통무용 기본춤사위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창작무용을 주로 선보이는 단체로서 의정부관내를 비롯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공연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힘찬 위상을 무용예술로 표현하는 단체이다.

매년 무용계에 가장 큰 축제인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에 의정부시 대표로 출전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과 프로단체가 한 무대예를 통해 노래와 음악, 춤으로 소통하는 의정부시 가무악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 주요연혁

2019

- 03.01 3.1운동 100주년기념행사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끄는 나라'(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 03.23 2019중견무용인 전통총판(양평군민회관 대공연장)
- 04.07 2019호국문화예술제(원주시 백운아트홀)
- 04.27 2019구리장자못 춤축제(구리장자못공원 야외특설무대)
- 05.01 제7회 의정부가무악축제 '어울림 한미당'(의정부신세계문화홀)
- 05.03 2019 세계김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서울시청앞 야외무대)
- 05.11 2019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신명나게 놀 '場'(의정부시청앞 야외무대)
- 05.17 의정부시-루카시 우호도시 협약체결식 축하공연(아일랜드캐슬 토파즈홀)
- 05.18 2019 녹양동 장미 문화 나눔문화공연(녹양역서부광장 야외무대)
- 05.25 남상일의 100분썸(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05.31 제28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 '달빛에 물든 꽃잎'(구리장자못공원 야외특설무대)
- 06.01 제3회 별빛여울축제 폐막식 축하공연 '여울빛 사랑'(의정부시청앞 야외무대)
- 06.03 의정부시 - 일본 체육교류회 축하공연(아일랜드캐슬)
- 06.14 2019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신명나게 놀 '場'(의정부제일시장 내 공연장)
- 06.15 의정부행복로 퍼레이드 및 거리공연 '풍무악놀이'(의정부행복로)
- 06.30 의정부행복로 퍼레이드 및 거리공연 '전통춤 한미당'(의정부행복로)
- 07.06 KBS국악한마당 녹화방송(군산)
- 08.15 8.15 광복절 경축행사 축하공연(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09.10-14 2019한가위 in 니가타 축하공연(일본 니가타현 유토피아홀)
- 09.20 제22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도대회 의정부대표지도 및 참가(수원실내체육관)

또한 2019년을 기준으로 20회째 개최하고 있는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는 초·중·고등부·일반부 및 대학부·어머니부 등 세대와 분야를 망라하여 순수예술 무용경연 대회로 우리나라 무용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인과 꿈나무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층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업과 의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큰 축제인 별빛여울축제, 회룡문화제 등에 다른 협회 및 예술단체들과 함께하며 의정부시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의정부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92년부터 의정부시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무용협회는 이미숙 지부장을 비롯하여 박문용, 이소희 부지부장 등 약 43명의 회원들이 무용예술을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1	
2	3
4	

1. 진도복과 장고춤
2. 즐거운 전통시장 토요일공연 릴레이 '장보며 즐거락' 중
3. 전통창작무용극 '사랑에 물들다' 중
4. 동방의 빛. 한국의소리



어글림 한라당 신세계 의정부점 문화홀(8층)



5	7
6	
8	

- 5. 2019별빛여울축제
- 6. 제7회 의정부가무약축제
- 7. 2019 찾아가는문화공연
- 8. 창작무용극 '태조 이성계' 중

문인
 협회



문인협회지부장
 양효숙

의정부문인이라는 자긍심

1991. 12. 31.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가 창립됐다. 김안기 초대지부장으로부터 시작돼 현재 14대 집행부가 구성됐다. 『의정부문학』이 창간돼 28집 출간을 앞두고 있고 의정부전국문학공모전도 제21회째 진행 중이다. 행복특별시 의정부 문화예술 발전과 문학의 저변확대에 의정부문인협회 역할이 크다.

2019년 정기총회를 통해 제14대 집행부가 구성됐고 오늘도 문인협회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다. 의정부예총 안에서 문인협회의 성장과 발전이 한 눈에 보이고 읽힌다.

천상병 시인의 기일과 맞물려 치러지는 『천상병 예술제』 「천상백일장」 주관도 어느새 제16회로 진행됐다. 의정부경찰청 로비에서 1년 넘게

1	2
	3

1. 의정부문인협회 정기총회(프라임마리스)
 2-3. 고려산 진달래꽃 축제 모임



문인협회 시화전시가 이뤄졌고 제3회 별빛여울축제와 제1회 생활예술인 경연대회에서 '6행시 짓기대회'도 진행하면서 의정부시민과 함께 어우러졌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6시에 월례회가 진행된다. '나의 사랑 나의 문학'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분과별로 돌아가며 문학 강의하는 시간이다. 자신의 문학과 과학문학세계를 소개하고 드러내는 시간이다.

고려산 진달래꽃 축제와 '기생충' 영화관람 등 번개 모임도 갖고 만리포·천리포 수목원으로 가을 문학 기행도 다녀왔다. 내부결속을 다짐과 동시에 작품 창작의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분과 모임을 통해 서로의 작품 창작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 발전한다.

제23회 의정부문학상과 공로상 시상식과 의정부문학28집 출판기념회가 연말 진행된다. 기성작가는 물론이고 의정부전국문학공모전 등 공모전이나 백일장 일반부 본상(장원, 차상, 차하)을 수상한 분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의정부문인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주요연혁

- 1991.12.31.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창립
- 1992.01.03.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초대집행부 구성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인준 초대 지부장 김안기
- 1992.10. 제1회 주부백일장(제7회 회동문화제)개최 (22명 선발)
- 1992.12. 『의정부문학』창간호 발간
- 1994.06. 통일염원제 백일장 주최, 통일염원제 시낭송회 주최
- 1994.10. 제1회 의정부문학 시민백일장 주관
- 1998.06. 제1회 의정부문협 시화전시(동아상호금융금고)
- 1999.04. 의정부문인협회 제1회 시낭송회(발바딿)
- 1999.05. 제6회 통일예술제 시민백일장 대회 주관
- 1999.10. 제1회 신인문학상 공모전 수상 모음집 『청머루』 발간
- 2000.01. 김안기 초대지부장 종합문예지 『문예비전』창간
- 2001.12. 제1회 문협장학금 지급
- 2004.04.23. 천상예술제 시낭송회 및 문학강연 주관
- 2004.04.25. 제1회 천상병예술제 천상백일장 주관
- 2005.10. 직동 근린공원 개장 기념 백일장 주관
- 2010.07.24. 제12회 의정부문학공모전 경기도 교육감상 신설 승인받음
- 2010.11.20. 제12회 의정부문학공모전 시상식 개최(의정부시 청 대강당)
- 2013.05.24. 용혜원 시인 문학 강연(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2013.06.09. 경기북부청사 전시실 의정부문인협회 시화전(-06.24)
- 2013.10.03. 의정부 경전철 스크린 시 게재 참여
- 2017.10.27. 제1회 별빛여울축제 시화전 및 시낭송(~10.28)
- 2017.12.22. 의정부 예술인의 밤
- 2018.01.02. 의정부경찰청로비에 문인협회 시화전시(~19.04.01)
- 2018.09.28. 남양주문화원 다산 백일장 심사
- 2018.10.27. 강원도 일대 문학기행(~10.28)
- 2018.11.23. 제20회 의정부전국문학공모전 심사(의정부예총)
- 2018.12.22. 『의정부문학』27집 출판기념회 및 시상식(지동관)
- 2019. 02.22. 정기총회, 제14대 집행부 구성(프라임마리스)
- 2019.04.27. 천상백일장 주관(의정부 시청 앞 잔디광장)
- 2019.05.31. 제3회 별빛여울축제 액자시화전 및 시낭송(-06.01)
제1회 생활예술인 경연대회 6행시 짓기대회(-06.01)
- 2019.10.18. 제21회 의정부전국문학공모전 접수(~11.15)
- 2019.11.27. 제21회 의정부전국문학공모전 수상자 발표
- 2019.12.21. 『의정부문학』 28집 출판기념회 및 제23회 의정부 문학상, 공로상 시상식

4	
5	6
7	

4-5. 제16회 천상백일장 주관(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
 6. 제16회 천상백일장 심사(의정부예술의전당)
 7. 9월 월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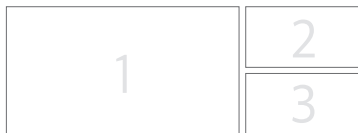
8	9	
10	11	12
13		

- 8. 기생충 영화관람 후 토론
- 9-10. 제3회 별빛여울축제 <액자 시화전>
- 11. 제3회 별빛여울축제 시낭독<김마리아 시인>
- 12. 제3회 별빛여울축제 시낭독<김선용 시인>
- 13. 만리포 · 천리포 수목원 문학기행

미술
협회



미술협회지부장
임응섭



1. 2019 의정부 현재미술초대전
2. 김해 의정부 intercity전
3. 천상병 시 그리기 대회

문화도시, 삶에 스며들다.

지금 의정부에 부는 바람입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의정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치 고정관념처럼 누구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미군부대 부대찌개라고요. 늘 의정부에 따라다니는 단어였지요. 요즘은 타지 인을 만나면 홍보하듯 말합니다. 부대찌개는 의정부지역의 명물이고요 미군부대는 없다고! 隔世之感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서는 미군들이 우리동네 앞 논이나 산중턱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 어린마음에 친구들과 미군들에게 Give me chocolate 하며 따라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80년대 중.후반으로 중학교를 다니면서는 4H라 하는 청소년학습 단체 라할까요. 知 德 努 體라는 이념아래 마을공동체로 개몽활동이 있었습니다. 4H라는 활동을 통해 여러지역과 교류하며 그때 조금씩 문화예술을 접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즈음에 의정부에도 미술인들의 모임이 생겨나 전시활동을 시작 했으며 선배선생님들께 들은 바로는 전시할 공간이 없어 다방에서도 전시를 하셨다 합니다. 1991년에는 사)한국미술협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사)한국미술협회의정부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땅한 전시공간이 없어 시청로비.청소년회관.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도 전시를 했으며 심지어 옛 그랜드호텔 앞 지하 방공호(대피소)에서도 전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지요.

그러던중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2001년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당내 전시실은 홍보관 형식의 공간이라는 소식에 미술인들의 단합된 힘으로 전시실로 바꾸는 일도 있었으며 그리하여 2001년5월1일 마침내 개관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부에 문화예술을 갈망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 했습니다.

현재 의정부미술협회는 29년의 역사로 제10대 집행부이며 정회원, 준회원 소모임등 8개분과 300여명의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주요연혁

- 1991. 한국미술협회로부터 인준
- 1991-2019 제28회 회룡미술대전 개최
- 1993-2000 제7회 의정부미술협회 회원전
- 2001-2019 현대미술초대전 개최
- 2016-2019 제3회 경기북부작가어울림전
- 2017.05.17 경기북지방경찰청 MOU 특별전
- 2017-2019 제3회 천상병시그리기대회 개최
- 2017.09.25. 경기도청북부청사문화예술공간조성 MOU
- 2017-2018 경기북부청사지역문화예술활성화전시 개최
- 2017.12.06. 경기도의재능 살며사랑하며배우며 개최
- 2019.03.30. PAMAF전 개최
- 2019.06.01. 제1회 생활예술인회초대회개최
- 2019.06.08. 김해-의정부 인터시티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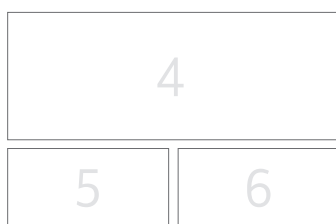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 미술인들의 집합체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동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의정부는 문화예술도시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력은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 완성 목표처럼 반환된 미군부대 공여지 재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있습니다. 의정부미술협회도 이에 발맞추어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11월21일 의정부예술의 전당이 의정부문화재단으로 탈바꿈하였으며 29일에는 민락동에 미술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협업을 통해 미협이 역할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문화예술을 즐길수 있는 기회의 장을 다각도로 조성할 것입니다.

의정부미술협회에서는 문화예술의 4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학교,요양시설 등을 찾아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잠시나마 함께하며 이해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있으며 천상병시인을 기리는행사의 일환으로 천상병시 그리기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어려서부터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 2019 PAMAF

또한 신진작가 발굴과 중견작가의 작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센터 등 프로그램에 협회 회원의 참여와 전시지원으로 시민과 작가간 질 높은 수업을 통해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접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자립까지는 지속적이고 다채로운 지원만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정체성을 확립할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문화도시 활성화와 자립을위해 미술협회 또한切磋琢磨하여 작가와 의정부시민이 일상에서 미술을 접할수 있고 함께참여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에 힘써 미술인들과 대중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꿈을 펼칠수 있는 매개체로써 시민의 삶속에 녹아 들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7-8. 2019 경기북부작가 어울림전
9-10. 생활예술인 회화대회



사진작가
협회

사진작가협회
이야기



사진작가협회지부장
조한규



1	2	3
4	5	
	6	

- 1. 2019 상반기정기출사(주산지의봄)
- 2- 3, 5. 2019 하반기정기출사
- 4. 2019 상반기정기출사
- 6. 2019 서울국제작가축제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주요연혁

창립배경

의정부지역의 사진협회 회원들은 의정부지부 창립 이전부터 이 지역 영상 예술의 발전을 위해 1980년 사진 동인회를 발족, 많은 활동을 하다가 영상예술인의 발전과 저변 확대의 목적하에 1983년 3월 25일한국 사진협회 의정부지부를 창립하게 되었다.

초대지부장에는 류후선, 부지부장에 장이철, 백상걸등이 선임되어 의정부 사진예술의 집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초 대 지부장 류후선(1983.3.27 ~ 1985.2.25)
- 제2대 지부장 류후선(1985.2.26 ~ 1987.3.20)
- 제3대 지부장 이흥재(1987.3.21 ~ 1989.2.25)
- 제4대 지부장 장이철(1989.2.26 ~ 1990.2)
- 제5대 지부장 이흥재(1990.2 ~ 1992.2)
- 제6대 지부장 류후선(1992.2 ~ 1993.2)
- 제7대 지부장 양승조(1993.2.29 ~ 1994.9.30)
- 제8대 지부장 최영구(1994.10 ~ 1995.3.1)
- 제9대 지부장 이흥재(1995.2.25 ~ 1996.2.25)
- 제10회 지부장 권기문(1996.2.25 ~ 1997.2.28)
- 제11대 지부장 권기문(1998.2.28 ~ 2001.2.26)
- 제12대 지부장 김승호(2001.2.27 ~ 2002.12.31)
- 제13대 지부장 홍재우(2004.1.31 ~ 2007.1.30)
- 제14대 지부장 신창송(2007.2 ~ 2009.1)
- 제15대 지부장 김덕기 (2009.2 ~ 2011.5)
- 제16대 지부장 양승조 (2012.6.29 ~ 2014.10)
- 제17대 지부장 김덕기 (2016.2.14 ~ 2019.2.21)
- 제18대 지부장 조한규 (2019.2.21~ 2022.2.20)





7	8
	9
10	

- 7. 2019 회원전 포스터
- 8. 별빛여울축제
- 9. 경기의료협력센터와 업무협약
- 10. 제24회 정기회원전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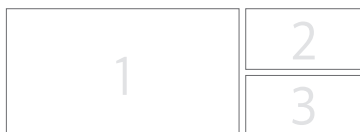
14

- 11. 회룡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 12. 회원전 오프닝
- 13. 의정부문화재단 출범식
- 14. 2019 송년의 밤

연극
협회



연극협회지부장
유준식



1-3. 1996 통일로 가는 길

연극협회 이야기

의정부연극협회는 1995년 사)한국연극협회 의정부지부로 탄생하여 2019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30~50여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작품활동을 한다.

유준식지부장을 비롯하여 전영옥부지부장, 박정근부지부장, 문인옥감사 이하 예술인들로 연극협회 사무국이 구성되어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원코리아페스티벌을 주최하여 통일축제를 주도 하고 있으며 2008년, 2019년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 대상과 2019년 대한민국연극제 본선 금상을 수상하여 의정부의 위상을 높였다.



한국연극협회 의정부지부 주요연혁

2019년 활동연혁

- 3월 :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공연 : 서울 봉황각, 의정부
- 4월 :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표 대상 수상 "꽃을 받아줘"
- 5월 : 신나는예술여행 전국순회공연 "안톤체홉의 사랑3"
원코리아 페스티벌 "원코리아 뮤지컬콘서트"
- 6월 : 대한민국연극제 전국본선대회 금상 수상 "꽃을 받아줘"
신나는예술여행 전국순회공연 "안톤체홉의 사랑3"
- 7월 : 지역 어르신들위한 효공연 "사랑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 8월 : 연극교실 새내기 워크샵 공연 "어디로 가는지, 예쁜 당신"
- 9월 : 경기생활예술인지원 의정부시민극단 고구려
"페추니아 파괴사건"
- 10월 : 경기예술활동지원세대간 컨넥터 마당극 "노인과반아"
- 11월 : 젊은 연극인들의 무대도모를 위한 "창동아트페스티벌" 개최
- 12월 : 서울메세나 선정공연 "유리동물원"
아르코 공연예술특성화극장 선정공연 "세일즈맨의 죽음"

또한 의정부시민과 함께하는 어르신을 위한 효공연과 청소년대상 예술교육공연 및 아마추어 의정부시민극단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 연극협회는 시민들의 질적인 삶과 힐링을 위해, 전문적 배우양성을 위해, 예술인들의 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추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정부시가 더 나은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4	5
6	7
8	

4-5. 꽃을 받아줘
 6-7. 노인과 받아
 8. 의정부시민극단 고구려 정기공연





9	10	11
12		
13	14	

- 9-10. 원코리아페스티벌
- 11-12. 대한민국연극제(극단한네-금상수상)
- 13. 3.1절 기념 봉황각재연 공연
- 14. 임정 100주년 기념 임진각 공연

연예예술인
 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이야기



연예예술인협회지회장
 박영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의정부지부 주요연혁

- 2017.03.25. 제1회 행복가요제
- 2017.05.12. 어버이날 경로잔치
- 2017.08.12. 제9회 신세대가요제
- 2018.05.13. 제2회 행복가요제
- 2018.10 제1회 시민을위한 문화축제
- 2019.05.19. 제2회 시민을위한 문화축제
- 2019.06.16. 제3회 행복가요제
- 2019.09.21. 의정부지하상가 번영회 행사 출연
- 2019.09.28. 의정부 자연환경 음악회 행사 출연
- 2019.11.02. 민락동 지하상가 번영회 음악회 공연
- 2019.11.24. 제11회 신세대가요제

의정부연예예술인협회는 2016년 9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인준 받아 박영길지회장 집행부가 형성되어 현재 회원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정기 모임을 해오고 있다.

2017년에 제1회 행복가요제를 비롯하여 경로잔치, 신세대가요제, 별빛여울축제, 시민을 위한 문화축제 등을 매년 개최하여 의정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요제를 통하여 시민·청소년들에게 가수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의정부에 예술아카데미 및 협회의 공연장을 마련하여 더 많은 시민 및 회원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하는 꿈을 갖고 있다.



		3	4
			5
		6	7
1	2	8	

- 1-2. 제11회 신세대가요제
- 3-5. 2019 시민을 위한 문화 축제
- 6-7. 2019 제3회 행복가요제 및 경로잔치
- 8.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

의정부

시민을 위한 문화축제

주최
(사단법인) 한국연예 예술인 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일시 2019년 5월 19일 오후 1시
장소 행복로 야외 특설무대

출연진
Jsm 발리댄스 비보이스댄스
이지연 이출 신비 성철
신민정 중희 최정
사회: 김용환 임희선 강소라 노병재

후원 에벤에셀악기
행사 축제현장 당일 경품권 추첨~
행사 및 후원문의 010-2911-4404



문화공연에 초대합니다

경로잔치 및 제3회 행복가요제

공연일시: 2019년 6월 16일(일) 오후 1시
장 소: 의정부시 행복로 미디어루프(야외무대)
주관·주최: (주)한국의정부 연예협회
후 원: 의정부시, 의화, 예중, 에벤에셀악기, 일양약품, 서린종합건설 010-2773-0756

사 회: 김용환
출 연: 이지연, 최정, 성철, 신민정, 중희, 백세기, 임희선, 노병재, 신비, 강소라, 각설이, 윤의, 빨리 / 장구남타 / 춤엔타 / 성철밴드

행복가요제 예선

일 시: 2019년 6월 9일(일) 오후 1시
장 소: 예중 1층
자 격: 경기도 거주자
신청문의: 010-2911-4404, 010-2472-2723
본 선: 6월 16일(일) 행복로 미디어루프

시 상

1. 대상: 율회가수중 상금 500,000원
2. 금상: 율회가수중 상금 300,000원
3. 은상: 율회가수중 상금 200,000원
4. 동상, 인기상: 200,000원 상당 동기타



영화인
 협회

영화인협회
 이야기



영화인협회지부장
 이경윤

만추의 밤 영화축제

무료관람

만추의 계절 10월에 영화축제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날
 2014년 10월 9일(목) 오후 7시 상영
 한국영화 "해적" 주연 : 김남길, 손예진

둘째날
 2014년 10월 10일(금) 오후 7시 상영
 한국영화 "군도" 주연 : 하정우, 강동원

셋째날
 2014년 10월 11일(토) 오후 7시 상영
 한국영화 "역린" 주연 : 현빈, 정재영

넷째날
 2014년 10월 12일(일) 오후 7시 상영
 한·일합작영화 "명탐정 코난"
 주연 : 김선혜, 이정구

개막식 : 2014년 10월 9일(목) 오후 6시
 오프행사 : 품바의원조 윤중일 출연, 미술 쇼, 지역 동아리 악단
 장소 : 의정부 시청 앞 야외 상설 무대
 주최 : 의정부시 문화체육부 주관 : 의정부 영화인협회

만추의 밤 영화축제

무료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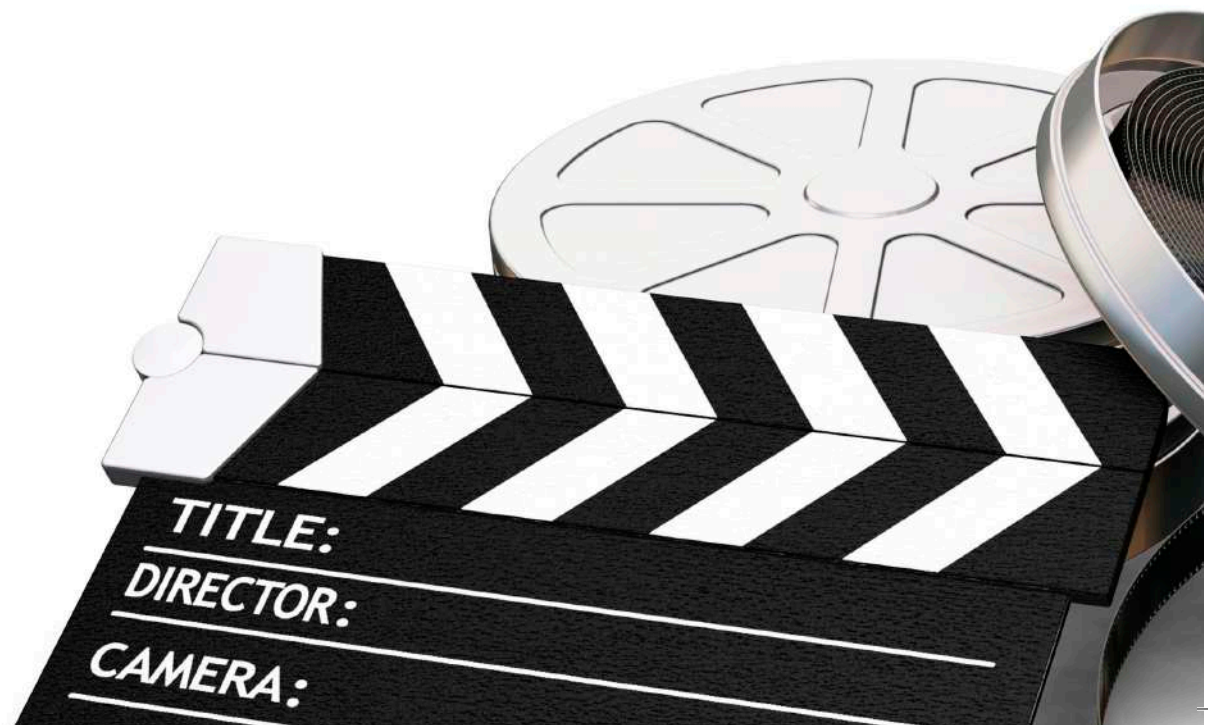
초대합니다
 의정부 영화인협회 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들께 우수한
 한국영화를 선택하여 초대하오니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목: **협녀 칼의 기억**(한국영화)
 (제작비 140억 투입한 대형이드벤처)

주연: **이병헌·전도연·김고은**

일시 : 2015년 10월 18일 오후 6시
 장소 : 경전철의정부시청역 앞 '예충상설무대'
 축하행사 : 마술쇼, 지역가수다수 출연
 ※ 준비물 : 두터운 외투 착용

주관 : 영화인연합회 의정부지회 협찬 : 의정부시 문화체육부
 지원 : 의정부예총




무료관람

만추의 밤 영화감상

초대합니다.
의정부 영화인협회에서는 의정부시 동부지역 시민들을 위하여 우수한 한국영화를 선택하여 초대하오니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영화 <특종> 추리사극
일생일대의 특종
사상초유의 실수



주연 : 조정석, 이미숙, 이하나, 김의성 국내개봉 : 2015년 10월 22일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요일) 오후 5시
장 소 : 송양고등학교(최첨단 설비학교) 의정부 송양로 6번지 (민락지구)
축하공연 : 송양고 동아리팀, 지역가수 출연
버스노선 : 35번, 107번, 1152번, 10-1번, 10-2번
송양고정문앞에서 하차하세요

주관 | 영화인협회 의정부지회 협찬 | 의정부시 문화체육부 지원 | 의정부예총

한여름밤의 영화 무료관람

초대합니다. 의정부 영화인 협회에서는 남량특집으로 “쥬라기공원 3”를 선택하였사오니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쥬라기공원3

축하공연 (오후 6시 공연)

모델 M.C 이애경	팝가수 프레스리	가수 강소라	가수 최정
			
	가수 송민수	가수 김호건	콤바 한심해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

일시 :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행복로내 미디어루프 야외무대 (구)중앙로
주최·주관 - 의정부영화인협회 / 후원- 의정부시, 의정부예총, 의정부연예인협회



음악
 협회



음악협회지부장
 오현영



1-4. 회원음악회

음악협회 이야기

한국음악협회 의정부 지부는 1993년 한국음악협회로 부터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인준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음악협회는 전문음악인들의 음악단체로서 의정부지역의 클래식 공연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음악기획 및 공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많은 음악단체들의 다양한 음악프로그램과 공연 등으로 지역 발전 및 문화예술발전에 커다란 주축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협회-회원음악회

모든 것이 아름다운 5월, 의정부음악협회에서 열세 번째 회원음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랑과 클래식”이란 타이틀로 마련한 이번 연주회는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의 성악곡과 피아노, 플룻의 솔로 그리고 현악4중주와 여성



양상블로 클래식을 사랑하는 많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였습니다.

합창대축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7월의 시작에 의정부음악협회가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합창제를 준비했습니다.

리에토 콰르텟의 〈This is the moment〉와 〈천개의 바람되어〉 현악4중주 앙상블을 시작으로 의정부기독합창단, 신곡실버합창단, 수레울합창단, 광명비전소년소녀합창단, 의정부혼성합창단, 소프라노 한마루의 〈마중〉, 〈O Sole mio〉 열창으로 빛날 솔로무대와 한나선교합창단, 은빛합창단, 의정부아가페코랄, 해피우먼스콰이어, 꿈의소리장애인합창단 그리고 300여명의 대합창곡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부제와 걸맞은 〈너영 나영〉은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큰 울림이 되어 커다란 감동으로 전해지는 의정부시 합창대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 주요연혁

- 2015.10.17 의정부예술제
- 2015.10.22 제36회 경기음악제
- 2015.11.07 메르스 극복을 위한 의정부시민 행복 콘서트
- 2016.08.27 2016 경기북부 시민음악제
- 2017.09.06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전개최
- 2017.11.18 2017 경기북부 시민합창대축제
- 2018.12.15 제2회 경기북부 시민합창대축제
- 2019.04-11 2019 찾아가는 행복 배달 음악회
- 2019.05.28 제13회 회원음악회
- 2019.07.13 제25회 의정부시 합창대축제
- 2019.09.28 2019의정부전국음악콩쿠르



제13회 의정부음악협회 회원음악회

Love & classic

2019. 5. 28 TUE 7:30 PM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FLUTE 김여진 sop. 김현주 sop. 이원숙 sop. 한다영 PIANO 윤선익 M.Sop. 최두리

PIANO 권태연 PIANO 우윤리 PIANO 조혜연

LIETO QUARTET
최지원, 백고은, 김지은, 천성미

주최 의정부음악협회
주관 의정부예술총
공연문의 010-3762-9709
회원권 10,000 원



5	6
	7
8	

5-7. 의정부시 합창대축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8. 별빛여울축제

2019 의정부 전국음악콩쿠르

문제의 도시 의정부에서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는 의정부음악협회가 미래의 음악인을 위해 전국규모의 음악 콩쿠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9 의정부 전국 음악 콩쿠르가 음악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펼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개회일시 **2019. 9. 28 (목) 9:00 AM**

개회장소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참가부종 **피아노 / 현악 / 성악**
 참가국 **자유국 1국**
 참가자격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참가문의 **HP 010-3762-9709**
 참가신청 **E-mail: cchcuh@naver.com (문의의 접수만 가능)**
참가신청서 다운로드(의정부음악협회 다운로드 가능) http://cafe.daum.net
 경연순서 **평일 공개 추첨**
 접수기간 **2019년 8월 26(일) ~ 9월 10(목)까지**
 참가계좌 **예금주 / 사단법인 의정부음악협회 (농협 317-0017-0889-71)**
 참가비 **초·중·고 8만원**
 특전 **본 콩쿠르 전체대상 입상자에 한하여 의정부음악협회 음악 행사에 연주 기회를 부여함.**

시상내역	유 의사항
전체대상 1등 상장 및 동학금(20만원)	4. 10일 국문 발표 연주 * 피아노/현악은 본시상(동학금)제출
부원부별 1등 상장 및 동학금(20만원)	* 10만원 공제 신청
부원부별 2등 상장	* 심사위원의 추천이 없으면 10만원 공제 신청 가능할 수 있음
부원부별 3등 상장	* 심사위원의 추천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연주 중단 시 상하지 않음
부원부별 특별상 시상	* 심사위원 특별 추천을 받은 입상자에게 수당 지급 * 기타 특별 상은 심사위원의 추천에 따라 결정

- 주최 **의정부음악협회**
- 주관 **의정부음악협회 대외운영위원**
- 후원 **의정부예총**



9	10
12	11
13	14

9-11. 의정부 전국음악 콩쿠르
 12-14. 2019년 찾아가는 행복배달 음악회

미술협회
작품



日日新 (50×80cm | 한지에 먹)

임 응섭

- 의정부미술협회 회장
- 의정부예총 부회장
- 백영수미술문화재단 이사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경기도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전국회화대회 대상 (국서련)
- 경기미협 한문서예 분과위원장
- 전국회룡미술대전 대회장
- 여민서예학원 원장





해바라기 (55×80cm | 한지에 수묵담채)

조영애

-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국전) 초대작가, 심사 역임(미협)
- 경기미술문인화대전 초대작가
- 전국회룡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 및 심사 역임
- 대한민국열린서화대전 초대작가, 운영 및 심사 역임
- 신사임당 이울곡 서예대전 초대작가
- 남농미술대전, 행주미술대전 등 공모전 심사 다수
- 의정부문화원 및 문화센터 문인화 강사
- (사)한국미술협회 문인화분과위원
-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서예문인화분과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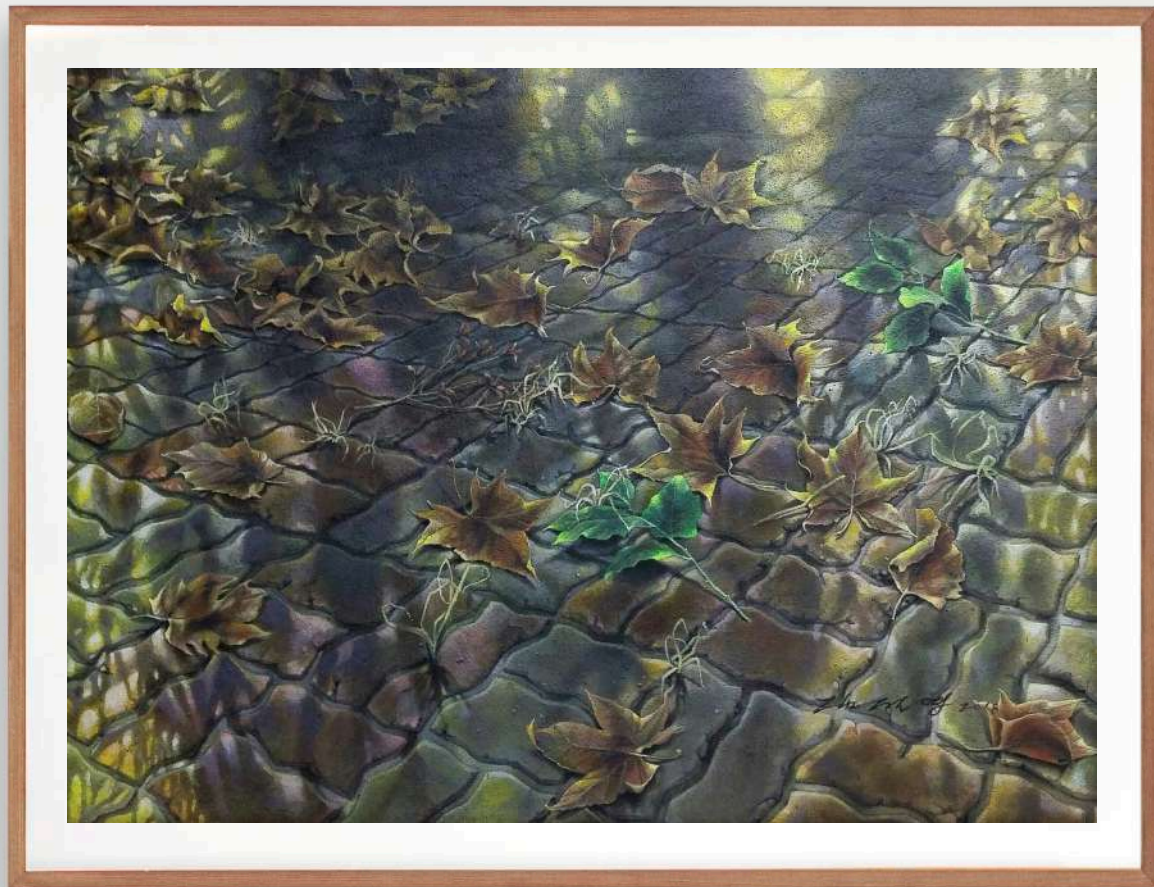


심연 4 (40×61cm | 옷칠판, 옷칠물감)

강연옥

- 개인전 2회 (라메르, 서울미술관)
- 초대개인전 1회 (31갤러리)
- 단체전 다수
- 미담회장, 야촌회 상임이사, 단정회지도
-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의정부미협 전통미술분과위원장





우연속 필연-음영(陰影) (162x130cm | Acrylic on canvas)

김 선영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 개인전 14회
- 국제 여성 아트페어 부스 초대전
- 국제 교류전(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타이완)
- 의정부 아트페스티벌 전 (2016년~2018년)
- 아트페스티벌-PAMAF전





무제 (70×50cm | 한지에 수묵, 채색)

양 홍수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졸업
- 1999년 삼정아트스페이스 개인전(서울) -비애(悲哀)-
- 2012년 의정부 흥연아트센터 초대 개인전 -숲-
- 2013년 갤러리192 초대 개인전(서울) -심아(尋我)
- 2015년 갤러리 H 개인전(서울) -바람, Wind-Wish
- 2018 산책전 -비켓갤러리 초대전
- 2019 경기북부청사 기획전 -경기북부청사
- GROVE GALLERY 초대 개인전(서울)
- 오늘의 형상전 - 의정부 예술의 전당



사진작가협회
작품



부용천의 향기

조한규

- 개인전 2회
- 2010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주관 신인상 수상
- 2010 국제사진공모전 입선
- 춘향제 전국촬영대회 금상 외 다수 수상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사업간사, 사무국장 역임
- 경기도 포토페스티벌 수회 참가
- 국회의원 문화상 표창 수상
- 2018 평택포토펬어 참가
- 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지부장





미래생명의 다리

김 광수

- 중앙대학교 동창회 이사역임
- 운산 김광수 사진전 4회
- 케이블TV 우리방송 "배워봅시다" 사진편 방송강의
- 경기도사진대전 초대작가
- 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 / 경기북부사진연구회 회장
- 대한프로 인상사진 추천작가 / 월간사진월간영상 추천작가 / TOPIC IMAGE STOCK 사진작가
- 경기도사진대전 추천작가상 수상
- 국립공원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외 각종 공모전 대상, 금상, 특선, 입선 등 300여회 수상
- 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여인의 산책

김기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 2017 경기도사진대전 입선
- 2019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 광주매일신문 사진공모전 특선 수상 외 다수 수상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역임
- 경기북부사진연구회 재무간사
- 국회의원 문화상 표창 수상 외 다수수상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장 표창 수상
- 거인산업 대표





빈 테이블

강 양희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재무간사
- 제24회 회룡전국사진 공모전 동상 수상
- 제27회 정읍전국사진 공모전 은상 수상
- 효자양상블 단장
- 의정부시 행복기자단
-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학습매니저



별 좋은 테라스의 삶

문인협회 작품 ▶



새벽, 노란색 갓등을 켜고, 노란 불빛 속에서 책을 읽는다. 죽은 자의 글을 살아있는 내가 읽을 때, 혹은 아직은 살아있는 자의 글을 죽어 있는 듯 고요한 내가 읽을 때, 모든 문장들은 서로의 기류를 타고 새롭게 변주된다. 그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 곳은 늘 경이롭고 신비하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난 것보다 더 깊숙하게 그것들에게 매료된 채 활자를 끄집어내면 가슴 어디께인가 화인 맞은 것처럼 별경계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펼칠 때부터 나는 이미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깊은 사유를 질투 섞인 나의 한숨으로 채우기도 하면서, 나에게 책은 새벽이슬에 젖은 싱싱한 꽃다발 같다.

새벽의 바그너는 잠시 책갈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무기력해진 손으로 턱을 괴게 하고 신비로운 우울을 선사하며 아직은 어두운 밖의 풍경에서 점멸하는 신호등에 시선을 돌리기도 하고 약간의 멜랑콜리와 함께 생각들을 침잠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원두커피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졌기에 하는 수 없이 누군가 선물해준 티백 원두커피를 우려내어 마시고 있다. 재정 상태가 나이질 기미가 없으므로 새해에도 티백 원두커피를 계속 마셔야 할 것 같다. 티백을 몇 번 저으면 커피색이 조금씩 짙어진다. 그 얇은 흔들림의 잔물결이 아름답다. 이디오피아 여인이 허리를 구부리고 커피를 볶는 사진을 어제 보았는데 그 여인의 머리를 느슨하게 가린 머릿수건의 은은한 색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거의 반 년 넘게 새벽의 시간을 놓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엿제부터 다시 새롭게 새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여름 내내 집을 나갔던 가출 청소녀가 추운 겨울 따스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오, 가장 평범한 시간을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새벽의 리추얼이 나를 가장 나 되게 살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숙경

- 1958. 서울출생.
- 2006 매일신문신춘문예 소설 당선
- 2006 경남신문신춘문예 소설 당선
- 2009 경기문화재단 우수창작기금 수혜
- 2009 소설집 <유라의 결혼식>
- 2016 산문집 <자폐 클럽>, <하나님의 트렁크>
- 2018 경기문화재단 기성작가 창작기금 수혜
- 2018 소설집 <1944, 테러리스트, 첼로>
- 의정부문인협회 회원 1994~현재



나는 선천적으로 새벽을 좋아한다. 이른바 아침형 인간인 셈이다.

열 살 안팎에도 집에서 십분 거리에 있는(주먹을 꼭 쥐고 달음질하면 오 분이다) 학교를 한 시간씩 일찍 갔다. 너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닫힌 교문 앞에서 수위 아저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때도 종종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봉치의 열쇠꾸러미를 털그럭거리며 다가와 문을 열어주는 수위아저씨와 아침 인사를 하던, 꼭두새벽 등교는 계속되었다.

전교생 6300명이었던, 매머드 초등학교의 놀이터는 언제나 북새통이어서 다가갈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새벽의 운동장은 말끔하게 비어있다. 싸리비 자국이 선명한 놀이터(모래 따위는 없다)의 시소에 책가방을 걸어놓고 정글짐에 올라가 혼자 놀았다.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나는 혼자 노는 것이 익숙했고 그것이 사람들과 부대끼는(왜 이런 표현을) 것보다 훨씬 좋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혼자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러한 나의 취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오히려 더 절실해지는 면이 없지 않다.

어제도 좋은 사람들과 멋진 식사를 하고 걷고 다시 어딘가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함께 했는데 2% 부족한 어떤 것을 느꼈다.

나는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일상에 머무는 이야기로 그 긴 시간을 일관했다. 나누는 이야기의 태반이, 정말 슬프게도, 수박 겉핥기식의 일상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가치관이 좀 남다른지도 모르겠다. 마음을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역시 허전했다. 그 갈증. 나에게서는 영원히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였다.

‘알쓸신잡’같은 대화는 왜 못할까? 그만큼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은 충분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도 나의 욕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을 것. 그냥 나 홀로의 시간을 마음껏 누릴 것.

그런 면에서, 가족이 있으나 홀로인 듯한 새벽의 시간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책을 읽다가 문득 테이블 다이어리로 눈길이 갔다.

날짜의 네모난 칸은 단 며칠을 제외하고는 뻑뻑하게 일정들이 적혀있다. 아, 텅 비어있지는 못하더라도 반쯤은 여백으로 비어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 외출들은 결국 누군가를 만나는 것일 테고 그 누군가는 길거나 짧게 나의 인생의 길목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일 터인데 어쩐지 즐겁지 않았다.

나는, 조금은 외롭고 싶다. 내가 외롭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외롭고 싶다. 사람이 그리워서 주소록을 들추고 저장된 전화번호를 누르고, 오래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고 싶어질 만큼. 하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노년의 삶을 ‘별 좋은 테라스의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독일의 철학자인 빌헬름 슈미트는 거의 모든 노년의 삶이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나이 든다는 것과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또한 늙는 것 역시 처음이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온’하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을 기술했다는 것이다. 평온하게 늙어가는 법. 평온하게 늙어가는 법이라...

식은 커피를 마저 들이켠 후, 다시 물을 끓이고 다시 티백을 넣고 저었다. 다시 조금씩 짙어지는 잔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티백을 손으로 꺼냈다. 그 따스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나를 평온하게 한다. 그러면서 나는 ‘평온하게’ 늙어가고 있다

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내면 어디서인가 부정의 욕구가 튀어나오고 있다. 평온한 삶이라는 것이 어째서 꼭 '별 좋은 테라스'에서의 삶이어야 하는 것일까.

여전히 나의 내면에서 자글자글 끓고 있는 비참, 비열, 비굴, 비통, 비탄에의 열망은 어떻게 하고? 설령 그 욕망으로 인하여 나의 아름다운 아침이 무참하게 깨어진다면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이 마음은 어떻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평론가 신형철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의 불멸의 책 <몰락의 에티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늘 몰락한 자들에게 대료되곤 했다. 생의 어느 고비에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참혹하게 아름다웠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전부인 하나를 채우기 위해 그 하나를 제외한 전부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텅 빈 채로 가득 차 있었고 몰락 이후 그들의 표정은 승고했다. 나를 뒤흔드는 작품들은 절정의 순간에 바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들은 왜 중요한가. 몰락은 패배이지만 몰락의 선택은 패배가 아니다. 세계는 그들을 파괴하지만 그들이 지키려 한 그 하나는 파괴하지 못한다. 그들은 지면서 이긴다. 성공을 찬미하는 세계는 그들의 몰락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노년의 삶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온한 삶'이 아닌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노년의 삶은 '별 좋은 테라스'의 삶이 아닌지도 모른다.



김치국밥

김치국밥을 끓였다. 남편은 내키지 않는 표정이다. 정작 하고자 했던 음식을 두고 김치국밥을 끓인 건 순전히 내가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밥알의 열기를 후~ 불며 넘기니 목구멍을 따라 뜨거운 전율이 느껴진다. 맛은 추억이나 결핍으로 존재한다고 누군가 말했듯이 각인 된 맛은 정서의 밑바닥에 박여 있어 삶이 비루해지려는 고비마다 생각난다. 그것을 끓이고, 먹고 있으면 잠시나마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무는 기분이 든다. 따뜻하고 깔끔한 국물이 몸에 스며들어서 구겨졌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사납게 달려들던 생각들도 안온해진다. 끓어오르던 내 마음의 불을 끄는 일이다.

김치 국밥은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끓여내시던 만찬(晩餐)이다. 멸치로 육수를 낸 것에 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 한소끔 끓이다가 쌀밥을 넣고 다시 복닥복닥 끓이면 김치국밥이 된다. 여기다 맛을 내기 위해 이것저것을 더한다면 개운한 맛이 나지 않는다. 끓일 때 중요한 것은 국물과 적당히 몽글어진 밥의 조화이다. 시간 조절을 못하면 밥알이 너무 퍼져 버린다. 국물이 투박하고 걸쭉해지면 맛이 없다. 요리의 반열에 들기에는 미약한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가벼움과는 분명 다르다.

우리나라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김치이다. 그것으로 요리된 음식들도 지천이다. 그런데도 김치국밥을 사 먹어 본 기억이 없다.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음식. 짧은 시간에 똑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폄하 할지도 모르는 그 맛을 찾



구 서휘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 수필문학 등단
- 한국 수필가협회 회원
- 수필문학 작가회 회원
- 의정부 문인협회 회원
- 저서 [마음을 빗질하는 시간]
- 공저 [사인사색], [꿈꾸는 자들의 철학], [씨 뿌리는 날들] 외 다수



는 나의 내력은 무엇일까. 육체적 만족감과 더불어 오는 영혼의 교감이다. 되새김하는 추억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다. 추억을 재현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김치국밥의 매력이다.

그러다보니 김치국밥을 끓이는 이유는 시장기보다 정서적인 것에 비중이 크다. 지난 시간 속에서도 오롯이 살아있는 그리움. 그래서 인생이 허기진 날은 뜨거운 김치 국밥을 끓인다. 안온하게 퍼지는 온기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준다.

김치국밥은 특별한 찬이 필요하지 않으니 궁핍의 생활에도 한 끼의 식사로 손색이 없다. 맛의 깊이를 좌우하는 것은 김치 맛이다. 그 맛은 숙성되기까지의 시간일 것이다. 때로는 청양고추를 썰어서 넣기도 한다. 땀 흘리며 먹고 나면 막힌 곳이 땀 뚫린 것처럼 가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 긴장하여 움츠렸던 마음도 녹는다.

국밥하나 달랑 놓인 밥상이지만 마음은 풍성하다. 아버지는 국밥을 반짝반짝 닦여있던 무거운 유기그릇에 담아주셨다. 유기그릇은 수저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 따스함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가 국밥을 끓여주시던 시간동안의 설렘이 아직도 느껴진다. 그 기억들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쥘여 넣은 것이다.

국밥을 먹으며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고뇌와 사랑을 생각한다. 아버지의 눈물 뒤에 내가 얼마나 평안했던가를. 아버지의 고달팠던 삶이 뒤엉켜서 애뜻해진다.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순환의 고리들이 쌓이고 또 쌓여간다. 가슴에 젖어 들었던 것들은 지워지지 않는다. 때때로 이렇게 구원의 시그널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마음은 다시 힘을 얻어 등등해질 것이다.

삶은 오묘한 것이어서 이렇듯 아주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만나게 된다. 누추해 보일 수 있을 어릴 적의 기억이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투영되는 것은 순전히 사랑이 넘치던 아버지 덕분이다. 아버지의 따뜻한 감성에 기대어 살 수 있었기에 엄혹한 삶의 시련들에도 끝끝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외국에서도 김치국밥이 생각난다. 돌아와 김치국밥을 끓여 먹으면 시름시름 앓던 몸과 마음이 기운을 찾는다. 따뜻한 그것이 속살 속으로 스미고 스며들어 다시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김치국밥을 끓이는 일은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이니 음식의 맛을 재현하고 먹는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라 하겠다.

창밖을 보니 난분분 첫 눈이 흩날린다. 어제의 시간위에 오늘의 시간들이 포개지고 있다. 따뜻하게 열리는 시간은 아버지가 남기고간 훈훈한 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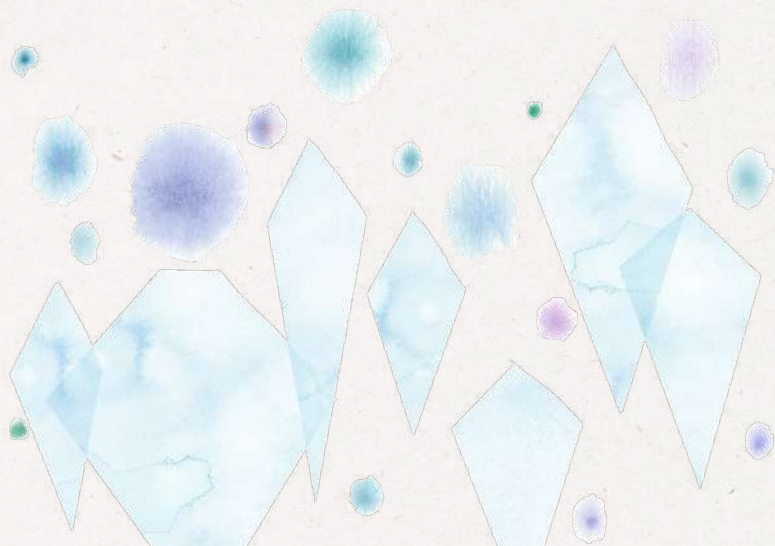
얼음

물을 만나 녹는 것이 아니다
얼음은 스스로 녹는 법,
자신의 숙명(宿命)임을 알고 있다

각(角)을 세워 보기도 하지만
스스로 물의 혀가 되어
자신의 귀를 활는다

당신의 눈[目]에 속을 다 내어 보여도
무어 대수라
얼음은 그저 얼음일 뿐

저 얼음에는 뒷모습이 없다.



김 선용

- 충남 태안 남산리 출생
- 1996년 계간 [문예와 비평]어름호 신인상 등단
- “소금인형의 사랑”(2004, 월간문학사) / “문학교육 방법론”(1997,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 2015-2016 (사)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겸 운문분과장, 현 운문분과장
- 2015년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공로상, 2016년 의정부문학공로상, 2017년 의정부문학상, 2018년 경기도 문학공로상 수상
- 국제PEN 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의정부문인협회 회원
- 경북여고, 진명여고를 거쳐 현재 경기도 의정부 소재 경민고등학교 국어교사



만보걷기

‘61캐시에 조스 떡볶이 한 접시’

당첨이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으쓱해지겠지. 오늘도 종일 걸어서 어렵게 얻은 캐시를 적립하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아, 가여운 오른손이여. 결국 그렇게 될 줄 알면서 눈을 번득이고 숨을 참아가면서 도전한 결과는 부끄러움이었다. 예순 한 걸음은 어디서 되찾을 수 있을까.

내달은 거리는 결코 작지 않았고 목적지를 분명하게 세웠기 때문에 떡볶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묻지 않아야 했다. 아내는 대답 대신 간절한 눈빛으로 응시하기만 하였다.

문득 아내와 동행한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언제쯤일까. 이 가을이 저물기 전에 아내와 씩씩하게 나들이를 할 시간은 가까이 올까. 넉넉한 웃음으로 만보걷기에 도전할 그날, 손을 모으자. 단풍은 더디 떨어져야하고 서리는 늦게 와 달라는 당부도 해야겠지.

‘61캐시에 조스 떡볶이 한 접시.’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오른손에 신경을 더 써야할 것 같은 어떤 다짐.



신 성수

- 1960년 경북 의성 출생
- 단국대 한문교육과 졸업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 현)의정부시 경민고 교사
- 1993년 문학세계로 등단
- 제12대 의정부문인협회지부장 역임 / 전)운문분과장
- 2004년 의정부시 문학상 시 부문 수상, 2009년 경기도문학상 공로상, 2013 의정부예총 공로상, 2014년 의정부문학상 공로상, 2015년 한국예총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2010~2011년, 2013년 문학세계 선정 '한국 문학을 빛낸 200인 선정'
- 저서 '목련, 낮은 곳으로 오다' 외 다수. 2016년 시세계 '나의 문학관' 10호에 등단 23년 회고 특집 원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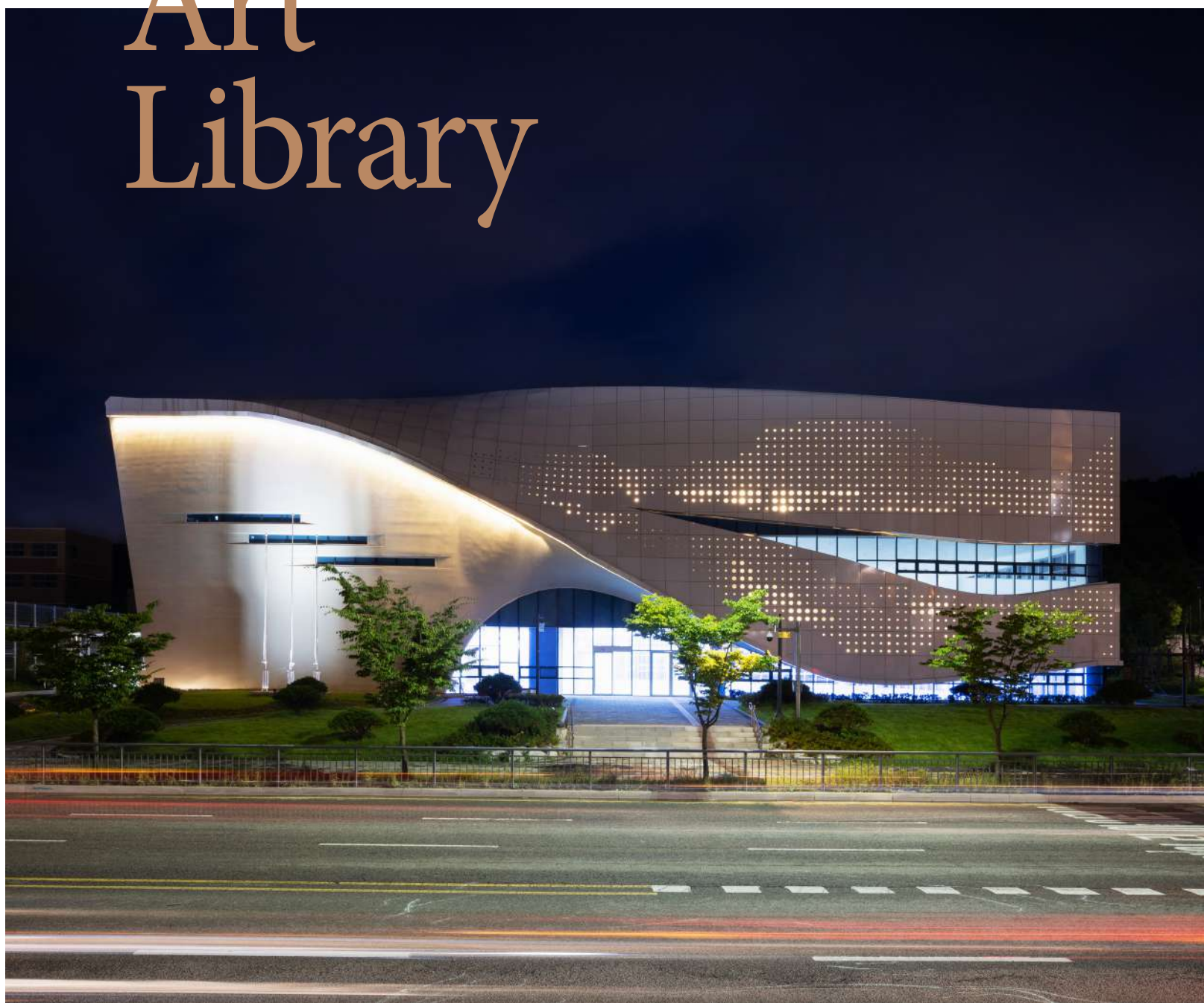




제3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부미술도서관

Art Library





운영목표

- 미술과 책이 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운영
- 미술전문 분야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미술도서관의 전문성 강화
- 신진 작가 및 예비작가 데뷔 무대 제공 등 미술도서관의 공공성 역할 강화
-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 지역자원과 연계한 미술 분야 문화 진흥
- 시민의 삶을 변화 시키는 제3의 복합문화공간 역할

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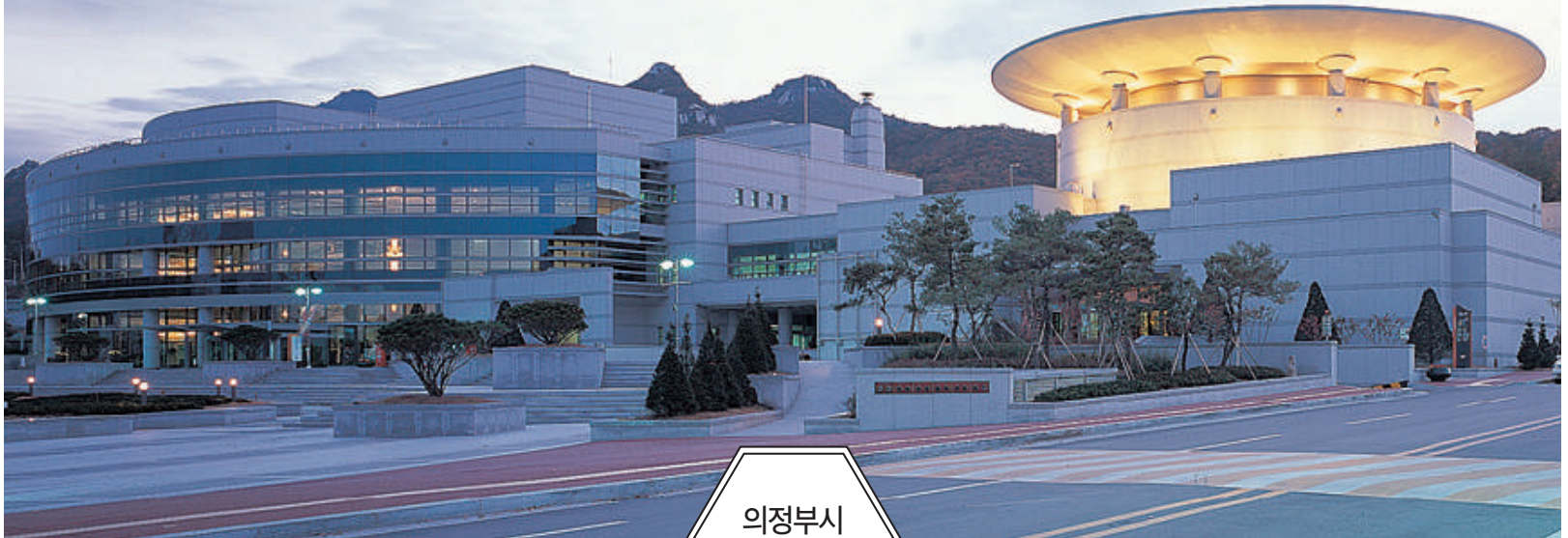
시설현황

- 위치 : 의정부시 민락로 248(하늘농선공원)
- 면적 : 연면적 6,565.2㎡(지상3층, 지하1층)

구분	연도	공간명칭	면적(㎡)	주관단체
지상	1층	아트그라운드	1,953.79	전시실, 미술자료열람공간, 인포메이션
	2층	제너럴그라운드	1,383.97	일반,어린이자료열람공간
	3층	멀티그라운드	1,267.62	청소년 존, 프로그램 존, 오픈스튜디오, 기증 존, 다목적 홀
지하층			1,959.82	서고(수장고), 주차장, 기계실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운영요일	휴관일
자료열람공간	10:00 ~ 21:00	화요일~금요일	- 매주 월요일 -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
	10:00 ~ 18:00	토, 일	
전시공간	10:00 ~ 20:00	수, 금	
	10:00 ~ 18:00	화, 목	



의정부시
 문화관광

사랑받는 문화예술의 산실

의정부문화재단(의정부예술의전당)

2001년 출범한 의정부문화재단(구: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교육, 축제, 문화나눔 등을 실천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최고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아리활동 지원과 소외계층 문화나눔 확산을 통해 친근한 이웃이자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
- 부지면적 : 40,273㎡(12,182평), 연면적 22,372㎡(6,767평)
- 주요시설 : 대극장(1,025석), 소극장(233석), 전시장(740㎡), 국제회의장(177석), 주차장(433면), 레스토랑(260㎡)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국제회의장



의정부문화재단 4대 축제

천상병예술제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 故 천상병 시인의 삶과 작품을 주제로 시와 음악, 연극, 무용, 전시 등 종합예술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향유하는 문화예술 축제



의정부문화재단 4대 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은 수준 높은 작품과 신진예술가들의 신선한 작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으로 구성되어 공연예술을 놀이처럼 즐기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축제



의정부문화재단 4대 축제

블랙뮤직 페스티벌

미군부대의 영향으로 힙합, 비보이 문화가 발달한 의정부 특성을 살려 현재 한국음악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블랙뮤'를 중심으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의정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평화의 시대를 맞아 경기북부 안보관광지(백마고지 등)와 축제를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외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의정부문화재단 4대 축제

의정부국제가야금 축제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를 소재로 한 전통예술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전통문화예술발전 도모하고 전통예술학교 및 단체, 전문예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열린 전통 공연예술을 접할 기회 제공



30년 역사를 가진 의정부시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의정부문화원



의정부문화원 소개

의정부문화원은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북부중심 문화원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중점사업은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역문화 창조육성, 생활문화 보급 확대에 두고 있습니다. 향토사료 발굴 및 보존사업과 창의적인 지방문화축제 및 지역 간 문화콘텐츠 교류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업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의정부시민이 문화예술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회룡문화제

회룡문화제는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정감 있는 문화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의정부시의 정체성 제고와 공동체 의식 함양,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정착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욕구 충족을 위해 시민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축제입니다.

- 사업기간 : 매년 10월
- 소요예산 : 225,000천원
- 사업대상 및 내용
 - 개막행사
 - 회룡콘서트
 - 회룡난장 (의정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공연)
 - 회룡종합전시회 (의정부 생활문화예술 작가 작품전시)
 - 전통문화예술 재연공연
 - 기타 부대행사 (체험, 전시 프로그램)
 - 폐막행사

- 그 동안 추진현황
 - 1986년 제1회 회룡문화제는 시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고,
 - 1990년 제5회 회룡문화제부터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현재까지 매년 10월 개최되고 있다.





의정부시
문화관광

의정부시 최초의 미술관 백영수 미술관

재단법인 백영수미술미술문화재단은 20세기 한국미술사의 산 증인이자 한국최초의 추상미술그룹인 신사실파 중 1인인 백영수 화백의 근 35년간의 프랑스파리에서의 활발한 작업활동을 포함한 예술세계를 기념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한국미술문화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백영수 화백

- 1922년 경기도 수원 출생
- 1945년 오사카 미술학교 졸업
- 1945년 귀국
- 목포고등여학교 미술교사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교수
- 조선 종합 미술전 심사위원(해방 후 최초의 국전)
- 대한 미술협회 상임위원
- 1977년 이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요미우리 아트센터의 전속계약 화가로 활동, 이탈리아 밀라노 파가니 갤러리를 비롯해 22번의 초대전 및 단체전, 살롱전 등에 100여 차례 참여
-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멤버: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유영국, 이규상)
- 프랑스의 'Salon Comparaison Realite Seconde' 회원으로 활동

관람 안내

관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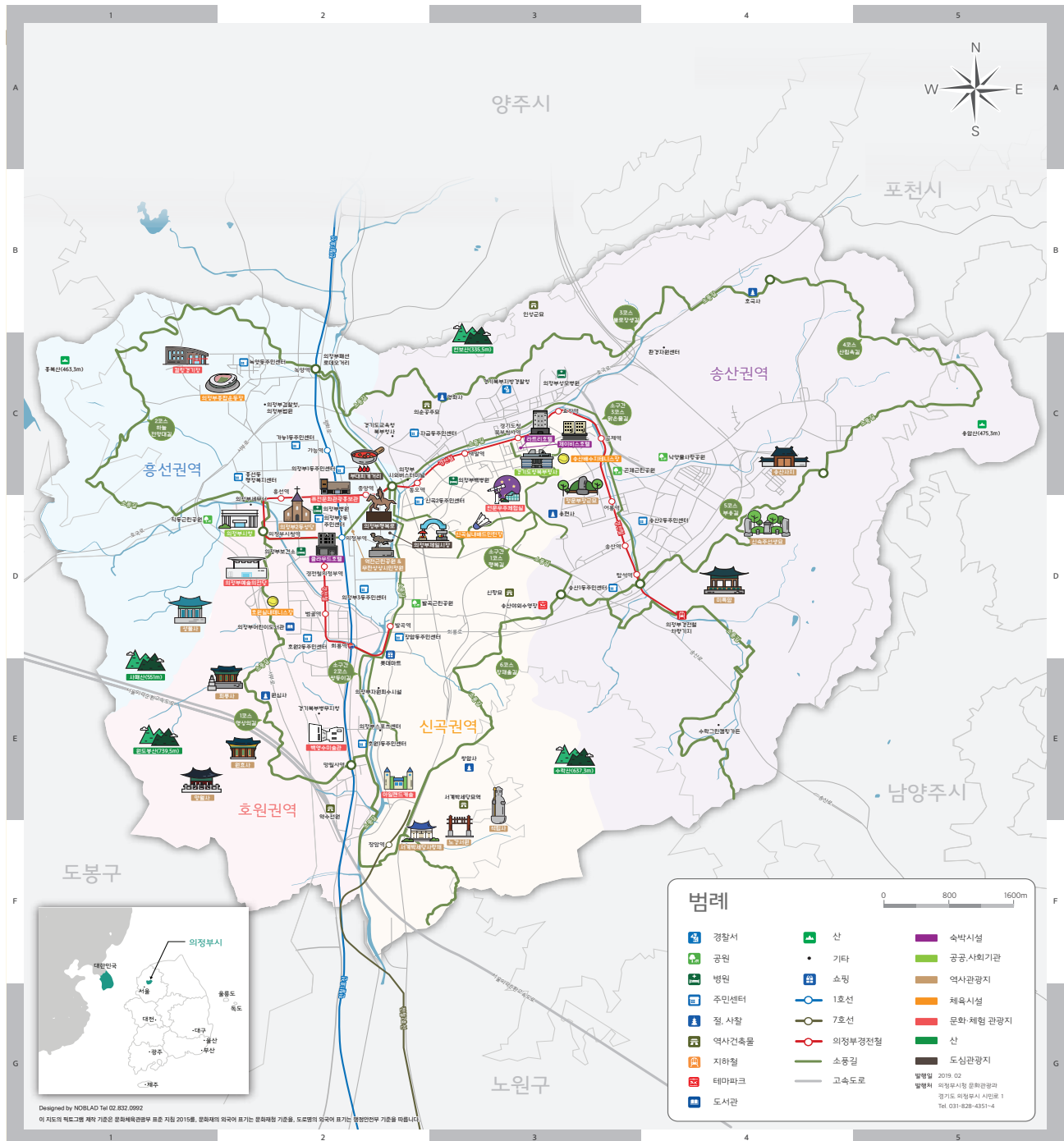
- 오전 : 10시 ~12시 / 오후 13시~ 18시
- 매주 월요일 휴관(신정, 구정, 추석 휴관)

구분		전시실+화가의 이뜰리에	전시실
관람료		5,000원	3,000원
관람 할인	의정부시민	4,000원	2,000원
	학생, 군인	3,000원	2,000원
	7세미만, 다자녀카드, 예술인카드	2,000원	1,000원
	4세 미만	무료	무료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시민도시

의정부시 관광안내 지도



역사관광지

세계 박세당 사랑채 F2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3호
세계 박세당 사랑채는 조선 초기의 실학자 세계 박세당 선생이 은거했던 사랑채다. 세월의 때가 묻어 있지만, 바로 그런 흔적 때문에 오히려 옛 신비의 저소로써 품위를 간직하고 있다.

☎ 의정부시 동일로128번길 36 (정암동)
☎ 세계문화재단 031-836-8600
🌐 www.seogyee.com

망월사 E1

경기도 전통사찰 제8호
망월사는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8년(639년)에 해호 스님이 여왕의 명에 의해 왕실의 용성을 기리고자 창건하였다. 서라벌 월성을 향해 기원하는 뜻에서 망월사라 이름 지었다.

☎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 (호원동)
☎ 031-873-7744

송산사지 C4

경기도 기념물 제42호
조선의 개국에 참여하지 않고 고려의 신하로 절개를 지키며 은둔하였던 조권, 원선, 이종인, 김주, 김양남, 유천 여섯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다.

☎ 의정부시 민락로 296 (민락동)

회홍사 E2

경기도 전통사찰 제7호
회홍사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무학대사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 사찰이다. 신라 신문왕 원년(681년)에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고 하니 의정부에서는 망월사 다음으로 오래된 절이다.

☎ 의정부시 전차로155번길 262 (호원동)
☎ 031-873-3391

역전근린공원 D2

안중근 동상, 평화의 소녀상, 3·1절 기념비, 베를린장벽, 한미 우호증진 상징기념비, 시 승격 50주년 조형물, 관광안내소가 있는 의정부 역사관광의 하브이다.

☎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동)

도심관광지

앵북로 D2

도시 속 작은 심터 앵북로는 자동차가 다니던 중심도로에서 하늘 높이 곧게 뻗은 소나무, 인공연못과 실개천이 어우러진 심터로 변모했다. 볼거리, 먹거리, 놀 거리가 가득한 도심 속의 명소로 시민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 의정부시 앵북로 1 일원 (의정부동)

제일시장 D2

의정부 상업의 전통과 현대의 소비생활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지역 상권의 종축다. 각종 테마거리와 이어지는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일시장이다. 조선시대 관북지방의 물류를 주력허락하던 다락원, 장수원의 상업 전통은 민초들의 생활 속에서 5일 장의 형태로 남아 현재의 제일시장으로 이어져왔다.

☎ 의정부시 태평로73번길 20 (의정부동)

로데오거리 D2

로데오거리에는 젊음의 열기가 가득하다. 특히 이곳에는 게임장을 비롯한 놀 거리와 저렴한 맛 집, 의류점들이 모여 있어 감각적인 것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 즐겨 찾는다. 서울로 치면 홍대 거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곳은 젊은 연인과 친구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데이트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의정부시 태평로73번길 일원 (의정부동)

녹색거리 D2

녹색거리는 제일시장과 앵북로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테마 거리이다. 이곳은 서울 명동을 벤치마킹해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만들어진 거리로 간판과 보드를 정비하고 휴식시설과 조형물을 설치해 한없이 맑고 깨끗한 의정부의 명소를 지리 잡았다.

☎ 의정부시 시민로121번길 일원 (의정부동)

부대피개거리 C2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공여지책으로 끌어먹었던 찌개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부대피개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부대피개거리이다.

☎ 의정부시 호국로1309번길 일원 (의정부동)
☎ 의정부경찰청 의정부중앙역 하차

자연관광지

원도봉산 E1

의정부와 양주, 도봉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원도봉산은 봄에는 꽃사태, 여름에는 맑은 물,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장관이어서 연중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산이다.

수락산 E3

기자바위, 철모바위 등 생긴 모양에 따라 이름 붙여진 다양한 바위를 감상할 수 있으며, 산행 내내 시야를 가리지 않는 탁 트인 전망은 수락산을 수도권 명산의 반열에 당당히 오르게 한다.

사패산 E1

사패산이란 이름은 조선시대 선조의 여섯째 딸인 정희옹주가 유정암(柳廷岩)에게 시집갈 때 선조가 하사한 산이라고 하여 붙은 것이다. 황금빛 햇살이 암석에 비치는 풍광이 너무도 아름다워 금부동(황금빛 언덕 송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문화 체험관광지

예술의전당 D2

의정부예술의전당은 2001년 개관 이후, 우수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와 서울 동북부 지역의 문화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준 높은 공연으로 서울 관객이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찾는 '역 관광' 현상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 의정부시 의정로 1 (의정부동)
☎ 031-8285-5841
🌐 https://www.uac.or.kr

전문우주체험실(의정부전문대) D3

4D영상 체험, 무중력 체험, 천체투영실, 모션 샌드, 천문대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와 개념을 학습하고 미래 과학자를 키우는 공간이다.

☎ 의정부시 추동로124번길 52 (신곡동)
☎ 031-828-8656

아일랜드캐슬 E2

대규모 야외 물놀이 공간. 온천 스파, 프리미엄 필절빙에서의 릴렉스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최고의 도심형 Spa&Waterpark

☎ 의정부시 장곡로 22 (정암동)
☎ 031-894-0100

백영수미술관 E2

의정부 1호 미술관. 한국 최초의 추상미술가인 신사 신태종 1인으로 35년만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한 백영수 화가의 작품을 기념하고 미술문화 전시를 한다.

☎ 의정부시 안암로58번길 55-1 (호원동)
☎ 031-873-4614

체육시설

컬링경기장 C1

☎ 의정부시 체육로 136 (녹양동) ☎ 031-837-6686

종합운동장 C2

☎ 의정부시 체육로 90 (녹양동) ☎ 031-828-6882

송산배수지대니싱장 E3

☎ 의정부시 부용로214번길 51 ☎ 031-840-4030

호원실내대니싱장 E3

☎ 의정부시 반골로39번길 87 ☎ 031-837-6645

신곡실내배드민턴장 D3

☎ 의정부시 금신로257번길 40 (신곡동)



의정부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신다

의정부 경전철



무인운전 시스템

30여 년의 운행경험을 보유한 VAL(Vehicule Automatique Leger, 경량자동차량) 시스템 채택
 종합관제실에서 전체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제어 및 감시하는 완전자동운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Siemens 고유의 차량통과검지기과 장애물검지기 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 차량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 시 전 구간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장애 조치 완료 후 운행을 재개하여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열차운행 및 이용안내

운행개요

구분	내용	비고
영업시간	05:00 ~ 24:30	
운행구간	발곡역 ~ 탑석역	15개역, 10.6km
운행시간	19분 54초	발곡역 ~ 탑석역 편도
운행시격	출퇴근시	3분 30초
	평시	6 ~ 10분
운행전동차	12편성 24량	예비 3편성 6량

운행시격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운행시간	운행시격	운행시간	운행시격
05:00 ~ 06:00	10분	05:00 ~ 06:00	10분
06:00 ~ 06:30	8분	06:00 ~ 07:00	8분
06:30 ~ 09:30	3분 30초	07:00 ~ 21:00	6분
09:30 ~ 17:30	6분	21:00 ~ 23:00	8분
17:30 ~ 19:30	3분 30초	23:00 ~ 00:30	10분
19:30 ~ 20:00	5분		
20:00 ~ 23:00	6분		
23:00 ~ 00:30	10분		

운임

구분	개인			단체	
	선/후불 교통카드	1회용 승차권	비고	승차권	비고
일 반	1,550원	1,650원	10km 초과시 추가운임 발생	1,240원	교통카드×80%
청소년	1,080원	1,650원		864원	
어린이	750원	750원		600원	

여주의 하루

Fresh Bitter Momordica



"여주의하루"는 100% 국내산 원료 '여주, 돼지감자, 구지뽕, 울무, 양파'를 14시간 달여서 만든 특허받은(특허등록 제 10-1719241호) 제품으로 꾸준히 드셨을 때 피를 깨끗하게 하여 '당뇨, 고혈압, 고지혈, 체질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용량 : 100ml × 50포
 원재료 : 여주, 구지뽕, 돼지감자, 울무, 양파
 고객센터 : 032-434-2288
 홈페이지 주문 : www.원웅.com

여주의 효능
 당뇨, 고혈압에
 효과적

양파의 효능
 고혈압 예방, 숙취해소
 상처회복에 효과

돼지감자의 효능
 천식억제, 변비설사 완화
 노폐물 제거

구지뽕의 효능
 부인병 개선, 정력향상
 항암효과, 노화방지

경기북부탐뉴스

시민기자모집

- 모집지역 ·
경기북부 10개 시·군
- 모집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 가능
- 기사제보 ·
기사/사진/동영상
- 문의전화 ·
031-826-0908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방송
운영자,
희망자,
모십니다.**

바른뉴스/ 바른뉴스/ 공정한뉴스

새하늘병원

www.saehane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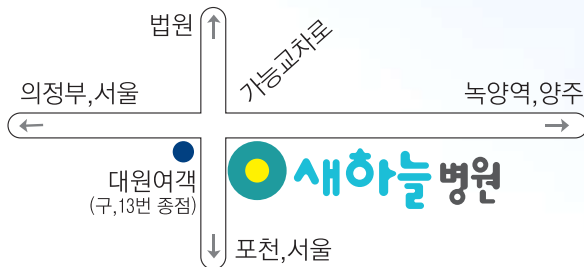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지정인정 의료기관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새하늘병원입니다.

알콜중독 클리닉

우울증 클리닉

불안 클리닉

치매 클리닉



진료 및
입원문의

031)836-7341~4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04
(가성동 76-1, 대원빌딩)

튼튼한 **척추·관절**을 원한다면!



의정부 참튼튼병원

척추외과, 관절외과, 신경외과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 오십견

송산교차로 제일시장

1588-7562

보아스 함께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
사회공헌재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전문 기관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합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uke 10:27b

문의 및 상담

전화 070-7576-1480(상담시간 09:00~12:00)

팩스 031)548-4552

홈페이지 www.boaz.or.kr

이메일 info@boaz.or.kr

카카오톡 '보아스사회공헌재단' 검색 후 친구 추가

APP 플레이스토어 '보아스사회공헌재단' 검색 후 다운로드

서울아산병원 출신 6인 의료진의 **분야별 진료!**

서울신세계안과 의원

4층 망막·황반변성 클리닉 / 안성형 수술실

5층 녹내장·일반외래 진료 / 드림렌즈 진료실 / 건성안 클리닉

11층 백내장·노안수술클리닉 / 라식수술실 / 보호자 라운지



1호선 의정부역
6-2번 출구(나이키빌딩)

1599-7397

경민!

더 MORE & PLUS

더 멀리! 더 많이!

더 나아갈 일만 남았다!

< 2020학년도 전형안내 >

* ③ 3년제 / ④ 4년제

계열	학과	정원	계열	학과	정원
인문사회	아동보육과	86	공학	정보통신과 ③	70
	유아교육과 ③	32		소방안전관리과	90
	국제비서과	60		게임콘텐츠과 ③	60
	사회복지과	70		영상콘텐츠과	60
	세무회계과	60		IT경영과	60
	효충사관과	60	자연과학	간호학과 ④	75
	보건의료행정과	80		뷰티케어과	60
	아동미술지도과 ③	60		호텔외식조리과	90
	호텔관광경영과	70		호텔외식서비스과	60
공학	공간디자인과 ③	90	예·체능	공연예술과	60
	건축과	60		레포트·태권도과	90
	융합소프트웨어과 ③	70			

정시 모집 - 19. 12. 30 (월) ~ 20. 1. 13 (월)



2019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19. 8. 1 ~ 23. 12. 31)



간호학과 (2016. 12. 12 ~ 21. 12. 11)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2017 교원양성기관평가
유아교육과 최우수 A등급 선정



2019 경민대학교
혁신지원 AHA사업 선정



사회맞춤형
(LINC+)육성사업 선정